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2학년도

제주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史的 고찰

지도교수 정 구 철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안 영 익

안영익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양 상호
인구학



2002년 8월 일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 초록>

제주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史的 고찰

안 영 익

본 연구는 제주도에 태권도가 유입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을 연대기적 방법으로 고찰하여 태권도인과 후학들에게 제주태권도를 이해하게 하며, 사적(史的)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주에 태권도가 유입되기 이전 현대태권도의 형성과정을 고찰한 다음 제주에 유입되어 발전된 과정을 경기태권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대태권도는 가라테를 배운 유학생들과 중국 무술을 배웠던 무도인들이 1945년을 전·후로 5개 도장을 설립하여 계보(관)를 형성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6.25전쟁으로 설립자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하자 제자들 간의 갈등으로 4개 도장이 신설되어 이들 9개 도장은 계보를 형성하며 지방으로 보급되고 있었다. 제주에는 195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제주에서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급기(1955~1961) : 호신을 위한 무술로써 계보에 의하여 농촌지역까지 활발하게 보급되던 시기였다.

전환기(1962~1969) :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구성되고, 경기화 되면서 농촌지역의 도장들은 침체되었으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 시작하였다.

성장기(1970~1979) : 제주도태권도회관이 건립되고,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를 하였으며, 계보의 폐쇄로 개인 도장 설립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발전기(1980~1989) : 태권도 사범이 직업으로 정착되기 시작하고,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 대통령기타기 전국대회 유치, 국가대표선수 탄생, 유단자회의 조직, 선수출신들이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태권도발전에 이바지 하던 시기였다.

도약기(1990~2000) : 해외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각종 전국대회 제주유치,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과 제주공업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탐라대학교, 제주도청 등에 태권도부 창단, 제주 전국체육대회 2위, 그리고 태권도 도장 설립이 급속히 증가되어 제주태권도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은 시기였다. 그러나 남녕고등학교 태권도부의 창단은 기존의 팀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전·후로 타 시도선수들을 영입하여 메달획득에 급급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태권도인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등, 내적인 발전보다는 외적인 발전에 치중하던 시기였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History of Jeju Taekwondo

An, Young-Ik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mna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Koo-Chul

This study is to consider how and when Taekwondo has been expended chronologically with being intended to make Taekwondo - players and their juniors understand Jeju Taekwondo, and to contribute to develop its history by getting them to use as a historical material.

Modern Korea Taekwondo got to form by dint of students who had studied Karate abroad and martial artists who had done Chinese martial arts. They found their each training hall around 1945, where they taught their skills. The hall were five in total, which became the main of modern Taekwondo ones. Some of the founders introduction into Japan, others were missing during Korean war. Be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ir disciples came to conflict each other and found new four training hall. As a result, these nine ones made their each genealogy and got their each skill distributed into various regions.

In Jejudo, Taekwondo began to be distributed from 1955. The history of Jejudo Taekwondo can be divided into five periods as followings:

Diffusion period(1955~1961): it was a period that Taekwondo was distributed into agricultural villages lively as a martial art for protecting oneself.

Transition period(1962~1969): Taekwondo association was organized and Taekwondo was primarily taught for a match from 1962. Though

it began to win the prize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the hall at the agricultural villages were dull.

Growth Period(1970~1979): Jejudo Taekwondo built its hall and won the second prize in the 57th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Having done away the genealogies led individual hall to being established.

Development Period(1980~1989): Taekwondo teacher began to be a kind of occupation. And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were attracted and held. As the result, Each school players grew to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m. Some of them learned to be members of National team. In addition, a black belt holders' party was organized and some of Taekwondo teachers, who majored in a physical education, were appointed to the secondary schools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contributed to develop Taekwondo.

Take-off period(1990~2000): the friendship between Jejudo and the other countries started to be exchanged. And Taekwondo clubs were organized at Namnyeong High School, Jeju Technical High School, Jeju Halla College, Jeju Tourism College, Tamna University, and Jejudo provincial government. Various kinds of National tournaments were attracted and held in Jejudo. Winning the second prize in the 57th National Sports Festival, these efforts resulted in promote the image of Jeju to a higher rank. The Taekwondo Club in Namnyeong High School's , however, gave rise to make the existing Taekwondo teams weak. And some of Taekwondo - players were adopted from other cities for the sake of winning the prize since the 79th Jeju National Sports Festival. What is worse, The conflict is taking place among with their managing the association. Thus, today Jeju Taekwondoians are placing more importance on developing internally than externally.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현대태권도의 계보 형성과정	4
1. 현대태권도의 역사적 의의	4
2. 태권도 계보(관)의 형성	6
2.1 초기 5대 관(館)의 설립	6
2.2 1950년대 4대 관(館)의 설립	10
III. 제주에서의 태권도 발전 과정	14
1. 보급기(1955~1961)	14
2. 전환기(1962~1969)	21
3. 성장기(1970~1979)	28
4. 발전기(1980~1989)	37
5. 도약기(1990~2000)	45
IV.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59
부 록	61

표 차 례

<표 1> 태권도 계보(관)의 변천	13
<표 2> 보급기의 도장현황	20
<표 3> 제주도태권도협회 역대 회장단과 재임 기간	22
<표 4> 전환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27
<표 5> 성장기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30
<표 6> 성장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32
<표 7> 성장기의 도장 현황	35
<표 8> 발전기의 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38
<표 9> 발전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40
<표 10> 발전기의 도장 현황	42
<표 11>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 역대 회장단	44
<표 12> 도약기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46
<표 13> 도약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48
<표 14> 도약기의 도장 현황	5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무술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지금의 태권도는 선배(先輩), 수박(手搏), 수벽타(手擗打), 각술(脚術), 태권등으로 전해 내려오다 1945년 이후 1950년까지 미군정을 거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일본에서 행해지던 ‘가라테’¹⁾와 중국무술 등이 국내에서 우리의 전통무술과 혼합되어 공수도, 당수도, 권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이상현, 1996 : 17) 태권도 학계에서는 이때부터를 현재 태권도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무술 유단자들이 계보(관) 중심의 도장을 설립하고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태권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태권도’²⁾란 명칭은 1955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제주도에는 1955년 초기 5대 계보의 하나인 창무관에서 공수도란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대정읍을 중심으로 강덕원 계보의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 청도관과 오도관에서 계보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유입 초기의 형이나 수련내용은 일본의 가라테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1962년 각 관 대표들이 합의하에 대한태수도협회 제주지회를 결성, 당시 창무관 관장인 ‘高正’³⁾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1963년 제주도체육회에 경기단체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태권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러 계보에 의하여 호신용 무술로 보급되던 태권도는 이 때부터 전국체육대회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어 시·도간 또는 계보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며 ‘경기태권도’⁴⁾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 가라테, 공수, 당수는 태권도란 명칭이 제정되기 이전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공수도’로 통일되었으며, 태권도에 비해 손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공수, 당수는 모두 ‘가라테’이다. 공수, 당수는 일본어의 혼독체계가 우리 나라에서는 음독체계로 일원화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 ‘당’이건 ‘공’이건 그 발음(혼독)은 모두 ‘가라’(から)이다. ‘人H’이라 써놓고 ‘대전’이라 발음하지 않고 ‘한발’으로 읽는 것이나 같다.”(김용옥, 1990)

2) 최홍희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태는 ‘발로 차고 뛰고 밟는다’, 권은 ‘주먹’, 도는 ‘길 또는 정신 수양’을 의미한다.(김경지, 2000:126)

3) 전 제민일보 주간, 전 오현고등학교 교장

제주태권도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도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제주태권도는 외적으로는 크게 발전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태권도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주태권도 역사가 정립 되어있지 않으며,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초기 지도자들이 점차 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주도태권도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에 태권도가 유입, 발전 되어온 과정을 고찰하여 후학들에게 제주태권도를 이해하게 하며, 사적(史的)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선배 태권도인들과의 대담을 참고하여 연대기적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제주도에 태권도가 유입되기 이전인 1945년부터 1950년대 9개 계보가 형성되었던 배경을 고찰하고, 제주에는 어떤 계보에 의하여 보급·발전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구분, 고찰하였다.

첫째, 공수도란 이름으로 무술로 보급되던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시기를 도입기로 규정하였다.

둘째, 무술 태권도에서 경기 태권도로 전환되던 시기로 협회가 조직되어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제주도에서도 경기가 시작되던 1962년부터 1969년까지를 전환기로 규정하였다.

셋째,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 태권도회관 건립, 선수출신들이 제주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하던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시기를 성장기로 규정하였다.

넷째, 제13회 소년체육대회 종합 2위,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 제주유치, 몽골협회와의 친선교류 협정, 태권도 선수출신들이 도내에 체육교사

4) 협회가 구성되고 경기규칙이 제정되어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의 태권도를 의미하며, 각종 태권도경기대회를 의미한다.

로 임명되던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를 발전기로 규정하였다.

다섯째, 태권도체육관이 대거 설립되고,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과 제주공업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탐라대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 되었던 1990년부터 2000년까지를 도약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 및 제주도협회와 원로들의 보존자료 그리고 대담을 통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주유입 이전의 상황은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의 9개 계보가 형성된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제주에서의 태권도발전과정은 보급기(1955)부터 도약기(2000)까지 경기태권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범위의 한계가 있다.

둘째, 제주태권도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없었으며, 관련된 문헌자료도 빈약하여 생존해 있는 몇몇 원로 태권도인들과의 면담에서 알게된 정보를 자료로 사용했다.

셋째, 태권도인들과의 대담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본고에서는 연구자 중심으로 자료를 채택했다.

II. ‘현대태권도’⁵⁾의 계보(관) 형성과정

1. 현대태권도의 역사적 의의

현대태권도의 역사에 대하여 태권도 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보고 있다. 첫째는 우리 나라 고유의 무예에서 계승되었다는 전통 무예관과 둘째는 일본의 가라테에서 유입되었다는 가라테 유입관이다.

이교운(1971), 이종우(1973), 문교부 편(1976), 국기원 편(1987), 정찬모(1999), 이학식(2001) 등은 현대태권도가 우리나라 전통 무예에서 계승되어 발전된 것으로 주장하여 가라테 유입관을 강력히 부정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양진방은 “한국 태권도가 수련하여 왔던 ‘형(型)’은 일본 가라테의 ‘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양진방, 1986 : 21)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김용옥은 “형의 진행 방향과 형의 이름도 평안, 철기, 공상군(觀空)등 가라테와 동일하고, ‘관(館)’이름 마저 우리나라 관인 청도관, 송무관이라는게 일본 송도관에서 한자씩 따온 것이다. 우리가 태권도라고 부르는 모든 무술의 조형은 완벽하게 메이드인 재팬(made in japan)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거짓말도 있을 수 없다”(김용옥 1990 : 70)고 하여 태권도가 우리고유의 택견과 전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전통무예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후 박한규(1993), 김철(1997), 이영득(1998), 안용규(2000), 김경지(2000), 강기석(2001) 등이 가라테 유입관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태권도 5대 계보의 하나인 송무관 3대 관장이었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강원식과 세계태권도연맹 자문위원인 이경명은 “태권도의 정통성과 전통성에 얽매인 나머지 불확실한 사료를 억지로 끌어다 연관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강원식·이경명, 1999 : i)고 하면서 가라테 유입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사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데서 논쟁이 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우리의 전통무술에 대한 연구에서 시대 구분은 주로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고대는 삼국시대 까지, 중세는 고려시대, 근세는 조선과 대한제국·일제하까지, 현대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나누고 있다.”(국기원편,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현대태권도’라 함은 해방을 전·후로 하여 계보도장이 설치되던 시기 이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발단은 해방 이전 일제하에서 일본 유학 중 가라테를 배운 유단자들이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당수도, 공수도, 권법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도장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테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계보 도장을 설립한 사람들은 일본 유학시절 어떠한 간에 일본의 가라테를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일본의 가라테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일제 하 중국에서 권법을 배운 후 일본 유학시절 가라테 유단자가 되어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도장을 설립한 YMCA 권법부 창설자인 윤병인 같은 무도인도 있었다. 또한 무덕관 창시자인 “황기는 남만주 철도국 직원시절 만주에서 우연히 중국 무술의 고수 중 한 사람인 양국진을 만나 그에게서 중국무술을 배웠다”(강기석, 2001 : 26)고 하였다. 당시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으므로 우리고유의 무술들도 서로 공유되었으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현대의 태권도는 황기를 제외하고는 일본 유학 시절 가라테를 배워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우리나라에 공수도, 당수도, 권법이란 명칭으로 도장을 설립한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는 1962년 대한체육회에 가입 후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과 다음해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 : World Taekwondo Federation)의 창립과 제 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창설하여 매 2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1986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를 성공리에 치름으로써 우리의 태권도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품새에 있어서도 대한태권도협회는 “품새제정위원회(1968)를 구성, 팔괘 품새와 고려·한수·일여 등, 17개 품새를 확정하였고, 이후 기술심의회는 ‘품새와 용어제정 소위원회’를 구성(1972), 학교 교과 과정에 삽입될 새로운 품새 ‘태극’ 8장까지 제정, 총 품새 25개를 완성”(이종우, 1975 : 8)하여 일본의 가라테와 차별화 하였다. 특히 권법과 가라테는 손기술과 형을 위주로 하나, 태권은 품밟기와 발차기를 위주로 한다. 태권도 경기는 손 기술을 거의 쓰지 않으며, 목표물을 빠르게 가격할 수 있는 과학화된 발기술 위주의 스포츠로 변화되어 중국의 무술들과 일본의 가라테보다 먼저 세계화되었다.

따라서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권법, 그리고 우리 고유의 태견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발기술 위주로 발전, 기존의 가라데와 권법, 태견과 차별화 되어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태권도 계보(관)의 형성

2.1 초기 5대 관(館)의 설립

현대태권도는 해방 전·후 일본에서 가라데를 배워 귀국한 유학생들이 도장을 설립, 계보를 형성하며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5년을 전·후로 하여 설립된 도장들을 보면 이원국의 당수도 청도관, 전상섭의 공수도 조선연무관(지도관), 황기의 당수도 무덕관, 尹炳仁의 YMCA 권법부(창무관), 노병직의 당수도 송무관 등 5개 도장이 설립되어 보급하고 있었다. 도장 설립 배경과 발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청도관 -

청도관은 우리 나라 태권도 도장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옥천동에 청도관의 명칭으로 최초로 도장을 설립하여 태권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이원국이다.(안용규, 2000 : 50)

그는 충북 영동소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 중·고교를 거쳐 19세 때 중앙대 법과에 입학하여 가라데를 배웠는데 그가 택한 도장은 일본 공수도의 본관인 송도관이었다. 후나고시(船越)로부터 5년 동안 수련을 받아 4단을 부여받고 1944년 귀국해 조선총독부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이듬해 해방이 되자 치안대장 역을 맡았었다.(강기석, 2001 : 21~22) 이원국은 일제 말기인 1944년 9월 15일에 청도관을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영신학교 강당에 설립하였다고 하나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고 후진을 양성한 시기는 1946년 2월부터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원국은 친일 행적 때문에 일본으로 밀항하여 청도관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없는 처지였으며, 오도관을 창설한 최홍회는 청도관 명예관장이었다.(강원식·이경명, 1999 : 2~4 참고)

이후 엄운규가 3대 관장이 되었으며, 그는 협회구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1961~1962, 1964~1972, 1978~1979), 국기원 부원장 등 태권도 계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태권도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조선연무관 공수도부(지도관)-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는 전상섭에 의해 창설되었다. 전상섭은 학창시절 유도를 배웠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척식대학에서 가라테를 배운 뒤 귀국해 서울 소공동에 있던 일본 강도관 조선지부(유도회관의 전신)에서 무도를 연마했다. 경신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전상섭은 1946년 3월 3일 강도관 조선지부 사범인 이경석의 허락을 받아 강도관 도장의 절반 정도에 공수도부 간판을 내걸고 관원을 모집했다.(강기석, 2001 : 32) 이것이 조선연무관 공수도부가 탄생하게 된 동기이다. 전상섭이 6·25때 행방불명되자 지도 사범으로 있던 ‘윤쾌병’⁶⁾과 이종우가 ‘지도관’으로 관명을 바꿨다. 지도관은 서울에서 태동했지만 전상섭의 친동생 전일섭에 의하여 전주에 지관을 개관(1947) 하면서 전북지역 군(郡)소재지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지도관은 초대 관장 전상섭, 2대 윤쾌병, 3대 이종우였다.(강원식·이경명, 1999 : 5~6) 지도관의 특징은 겨루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태권도가 경기화된 이후 각종 태권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태권도신문사 회장인 이승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인 최영렬 등을 들 수 있다. 지도관 3대 관장 이종우는 대한태권도협회를 창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무덕관-

무덕관은 해방 직후 서울 용산역 부근의 철도국(현 고려대학 부속병원)에서 ‘황기’⁷⁾에 의해 ‘운수부 부우회 당수도부’로 출발했다. 무덕관은 지금의 교통

6) 윤쾌병은 일본 유학시절 병리학을 전공하면서 가라테를 배운 학구파 사범이었는데 당시 일본 가라테 7단으로 한국 무도 계의 최 고수였다.(강기석, 2001. p.33. 참고)

7) 황기는 1914년 경기도 장단 출생이며, 경기상고를 졸업, 1935년 남만주 철도국에 입사하

부인 운수부에 부설 형식으로 당수도장이 생긴 것이 그 효시지만 창설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46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강원식·이경명, 1999 : 8) 무덕관을 세운 황기는 우리나라 5대 모체관 창설자들 중 유일하게 가라데 출신이 아니고, 중국무술 출신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라데를 아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가 가끔씩 일본어로 된 가라데 책을 보며 형을 연마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강기석, 2001 : 25) 무덕관은 철도국(운수부)을 통해 각 지방의 기차역 창고에 도장을 개관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당시 수련생들은 대부분 철도국 직원들이었다. 무덕관은 협회 통합에 반대하는 황기의 고집으로 내분이 일어나 결국 그의 제자인 김영택과 홍종수가 주축이 되어 1965년 황기를 무덕관에서 제명하고 통합의 길을 걸었다. 이후 이강익이 관장직을 맡았으나 얼마가지 않아 물러났고 뒤이어 홍종수가 관장이 되었다.(강원식·이경명, 1999 : 7~9 참고)

무덕관 창설자 황기는 일본의 가라데 출신은 아니지만 중국의 무술과 가라데 품새(型)를 연구하며, 수련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협회 통합에 반대와 명칭에 있어서도 당수·화수·수박도를 주장, 타협을 모르는 고집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무덕관 관장직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다.

무덕관은 다른 관에 비하여 많은 유단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각 ‘관’이 통합된 후에는 홍종수(1969~1970·1989~1995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황춘성(1996.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임춘길(1995.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노우중(1997~1998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등, 요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었다.

-YMCA권법부(창무관)-

YMCA권법부는 1946년 윤병인에 의해 창설되었다. 해방후 경성농업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무도를 가르친 윤병인은 조선연무관 창설자인 전상섭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조선연무관 공수도부에서 운동을 하다 서울

여 만주에서 우연히 중국 무술의 고수 중 한 사람인 양국진을 만나 중국 무술을 배웠다. (강기석, 2001 : 26 참고.)

종로에 있던 YMCA에 권법부를 창설해 독립한 것이다. 순수 무도인으로 정평이 나 있던 尹炳仁은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내면서 중국무술을 익혔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가라데를 배웠는데 무술 성취도가 매우 높아 가라데 4단이 되었고, 일본인을 제치고 일본대학 가라데 주장을 맡았다.(강기석, 2001 : 37) 그러나 창시자인 尹炳仁이 6.25때 행방불명되자 그의 제자 이남석은 체신부에 공수도 수련장을 차려 별도로 수련생을 가르치다가 한국전쟁이 끝나자 이남석, 김순배가 창무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달게 되었다. YMCA권법부 출신으로는 이남석, 홍정표, 박철희, 김순배 등이 있다. 창무관 수련의 특징은 일본의 당수도와 북방 중국무술을 혼합하여 수련생의 체형에 알맞게 가르쳤다는데 있다.(하태은, 1999 : 26) 제2대 관장 이남석이 197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제3대 관장에 김순배가 취임하였으나 1978년 관이 완전 폐쇄되자 친목단체인 창우회 회장으로 현존하고 있다. 김순배 관장은 태권도가 경기화된 이후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으로 심판부장, 부회장, 국기원 연수원장 등에 임명되어 태권도발전에 기여하였다.

-송무관-

송무관은 노병직의 일본 유학생활동을 청산하고 1946년 5월 개성에 정식으로 현판을 내걸고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강기석, 2001 : 39~40) “노병직은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과 일본 유학 시절, 송도관의 후나고시(船越)에게서 함께 가라데를 배웠다. 송무관은 승단심사에 격파를 필수로 하고 수련이 까다로웠으며 해방 후 도장을 서울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당시 5대 계보 도장 중 관세가 가장 미약하였다. 2대 이영섭, 3대 강원식이 관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했다. 송무관의 특징은 주먹과 수도(손날) 단련을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모한수련(耐寒修練)과 모서수련(耐寒修練)을 실시하였다.” 각 계보 도장들은 연무 시범대회를 해마다 개최, 수련생들이 익힌 위력과 기술을 과시하면서 저변확대의 기회로 활용했다. 시범 내용은 기본동작, 품새(型), 격파, 자유대련(1:1, 1:2) 위주로 펼쳐졌다.(강원식·이경명, 1999 : 11~13)

당시의 도장 명칭은 일본의 가라데 도장과 같이 ‘관(館)’자를 부쳤으며, 무

술 명칭은 계보에 따라 당수도, 공수도, 수박도, 권법 등으로 불려졌다. 수련 방법은 일본의 가라데와 비슷한 품새 그리고 각 계보의 특이한 수련방식을 복합시켜 지도하였다. 계보에 따라 품새도 조금씩 다르게 전수되고 있었으나 품새의 명칭으로 볼 때 일본의 가라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겨루기는 무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주지는 않고 목표지점에 가깝게 적중시키도록 하였다.

2.2 1950년대 4대 관(館)의 설립

1950년대는 초기 5대 관 설립자들이 6.25전쟁으로 행방불명, 또는 일본으로 밀항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하자 그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새로운 관을 설립하게 된다.

-오도관-

무도인이었던 ‘최홍희’는 “국군을 창설한 110명 중 한사람”⁸⁾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청도관 설립자인 이원국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명예 관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도관 출신들을 군에 많이 입대시켜 놓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군대 내에서 오도관을 창설할 수 있었다.

군부대에서 발전한 오도관은 제주도 모슬포가 그 탄생의 요람이다. “1953년 9월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한 ‘익크 부대’는 사단마크로 2자를 뜻하는 우리나라 지도에다 9자를 뜻하는 최홍희의 주먹을 그려 38선을 때려부수겠다는 의미로 도안했다. 여기서 ‘익크’란 신익희 선생을 존경하는데서 비롯하여 신익희의 ‘익’ 자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는 이 부대에 당수도 2단 남태희 중위와 1급 한차교 하사를 훈련소 사범으로 임명하여 태권도를 보급, 29사단을 단시일 내에 강군으로 만들었다. 이를 일명 ‘주먹사단’ 이라고 한다. 이

8) 1918년 함경북도 화대에서 태어남, 일본 중앙대학 재학 중 가라데 유단자가 됨, 1945년 국군 창설요원으로 군사영어학교 수료, 1958년 대한태권도협회 창설 초대회장, 1961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 1962년 초대 말레이시아 대사, 1972년 캐나다로 망명, 1979년 북한에 태권도 보급, 현재캐나다 토론토에 거주, 국제태권도연맹(ITF)총재.(최홍희, 1997 : 1권 참고)

부대는 1954년 6월 제주도를 떠나 육군본부 직할 제1군단에 배속되었으며, 제1군단 창설 4주년 기념일에 대통령인 이승만 앞에서 시범을 보여 인정을 받은 후 제3군단에 배속되어 부대(강원도 용대리)에서 1954년 10월 오도관을 창설하였다.”(하태은, 1999 : 27~28) 일본 중앙대학 시절 가라테 유단자였던 최홍희는 “1955년까지 당수, 공수, 권법 등으로 불리던 것을 우리 고유의 택견에서 이름을 따 ‘태권도’라는 명칭을 ‘명칭제정위원회’⁹⁾(1955)에서 통과시켰다. 그 후 태권도를 전군에 보급시키면서 오늘날 태권도란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오도관은 월남 전쟁 때 태권도 교관단 파견을 계기로 민간도장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관세를 확장시켜 나아갔다. “오도관은 최홍희가 ‘국제태권도연맹’(ITF : International Takwon-do Federation)¹⁰⁾을 창설한 후 일탈행동을 하면서 급격히 퇴조하게 되었으며, 현종명, 박병오, 백준기 등이 관장을 맡으며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강원식 · 이경명, 1999 : 14~15)

최홍희는 현대 태권도사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태권도란 명칭이 성립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도 태권도 계에서 가장 비판받는 인물이 그다. 하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태권도는 결코 오늘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홍희가 국제태권도연맹을 창설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김운용이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 이들 두 단체간의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세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도관-

“정도관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청도관 출신인 이용우에 의해 서울 서대문 로터리에 중앙본관이 개관되었다, 정도관 역시 청도관에서 분리되었는데

9) 명칭제정위원회 : 유화청(미창 사장), 손덕성(청도관관장), 이형근(연합참모총장, 육군대장), 조경규(국회부의장), 정대천(민의원), 한창완(정치신문사장), 장경록(정치신문 주간), 홍순호(공익통상 부사장), 고광래(동아일보 주간), 현종명(청도관 사범). 실제로는 ‘대한당수도 청도관 제1고문회’라는 이름으로 요정에 불러모아 놓고 통과시킴. 그는 ‘跆’는 발로 뭉다, 밟는다는 뜻으로, ‘拳’은 주먹을 뜻하여 합치면 발과 주먹을 구사하는 무도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명칭이라고 하였으며, 태권이란 이름은 음운상 택견과도 흡사하니 역사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용옥, 1990 : 63 참고)

10) 최홍희에 의하여 1966년 서울에서 창설, 1972년 캐나다에 망명하면서 공산권국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다.

모체관인 청도관과 큰 마찰 없이 설립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다른 관과는 다른 점이다. 정도관은 마산, 울산, 창원, 목포, 김제 등지에 지관을 개관하며 관세를 확장해 나갔다.”(강원식·이경명, 1999 : 17~18 참고) 그 후 이용우는 국기원 고단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무관-

한무관은 전상섭의 설립한 조선연무관에서 수련했던 이교윤에 의하여 1956년 창설하였다. 조선연무관 관장이었던 전상섭이 한국전쟁으로 납북된 후 조직체계가 흐트러지면서 그의 제자인 이종우와 이교윤의 갈등으로 한무관이 설립된 것이다. 이교윤과 결별한 이종우는 1956년 8월 한국체육관에서 조선연무관 사범이었던 윤쾌병을 영입하여 ‘지도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였다.(강기석, 2001 : 46) 그러므로 한무관은 외형적으로는 지도관에서 분과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전상섭의 조선연무관에서 지도관과 한무관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무관은 지방으로의 세력확장은 미미(微微)하였다.

-강덕원-

강덕원은 YMCA권법부 창설자인 윤병인의 지도로 이남석, 김순배 등과 함께 수련했던 홍정표와 박철희 두 사람에게 의해 1956년 서울 신설동에서 창설되었다. “YMCA 권법부 창설자인 윤병인이 6·25때 행방불명되자 이를 재건하려던 이남석·김순배와 홍정표·박철희의 갈등으로 강덕원을 창설한 것이다. 강덕원 출신으로는 후일 대한태권도협회 5대 회장으로 태권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정치인 김용채를 비롯, 임복진·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인 이금홍 등이 있다.”(강원식·이경명, 1999 : 15)

1950년대의 태권도는 한국전쟁으로 혼란기를 맞아 5개관에서 9개관으로 파생되어 계보 중심의 무도로 보급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 계보의 변천과정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태권도 계보(관)의 변천

시기	관의 명칭 및 관장									
1940년 대	청도관: 이원국 (1946.2)			조선연무관 전상섭 (1946.3)		무덕관 황기 (1946)	YMCA권법부 윤병인 (1946.9)		송무관 노병직 (1946.5)	
1950년 대	오 도 관	청 도 관	정 도 관	지 도 관	한 무 관	무 덕 관	창 무 관	강 덕 원	송 무 관	
	(1954)	(1951) (1954)	(1954)	(1951)	(1956)		(1951) (1956)	(1956)		
	최 홍 희	손 덕 성	엄 운 규	이 용 우	이 종 우	이 교 윤	황 기	이 남 석	홍 정 표	박 철 회 노 병 직
1960년 대	9개관에서 43개관으로 난립됨(1973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기존의 9개관으로 통합)									
1976. 5 (관명 개칭)	5관	9관	7관	8관	2관	4관	3관	6관	1관	
	곽 병 오	엄 운 규	이 용 우	이 종 우	이 교 윤	홍 중 수	이 남 석	이 금 홍	강 원 식	
1978.10	9개 館을 완전 폐쇄하고 대한태권도협회로 통합.									

(출처 : 이경명 · 강원식, pp.2~18 · pp.252~254. 강기석, p.21~53. 참고)

초기에는 각 관 설립자들에 의하여 발전하다가 6.25 이후 관 설립자들이 일본으로 도피, 행방불명 등, 혼란기를 맞아 그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동료들 간의 갈등으로 4개의 신설관이 탄생하였다. 이 때부터 관 사이에는 파벌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태권도가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순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이 완전 폐쇄(1978) 될 때까지 수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III. 제주에서의 태권도 발전 과정

1. 보급기(1955~1961)

제주에서 태권도의 보급은 “모슬포에 창설한 29사단 ‘익크부대’(일명 주먹사단) 내에서 사단장 최홍희의 지시”(최홍희, 1997 : 324)에 의하여 처음 보급되었다고 하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보급한 것은 창무관 제주지관이 설립된 1955년부터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권도는 각 계보의 세력 확장 차원에서 지방으로 보급되었는데, 제주도에 는 창무관 계보에 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를 중심으로 보급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강덕원 계보가 모슬포를 중심으로 제주에 보급되었다. 그 외 청도관과 오도관, 송무관 계보가 있었는데 청도관 사범 현맹호와 송무관 사범 김명현은 창무관 문봉준¹¹⁾(본명 文大植) 사범의 제자들로서 타 계보의 유혹에 따라 창무관 계보를 이탈하여 세력확장을 시도하였으나 미미(微微)하였다.

강덕원 계보는 모슬포를 중심으로 중문면 지역까지 보급되며 발전하였으나 기타 지역에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현재는 계보의 통합으로 계보에 의하여 보급되던 참고할 만 한 자료들이 모두 분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덕원 태권도를 모슬포에 처음 보급한 ‘이동회’¹²⁾와 2대 관장인 ‘강정구’¹³⁾가 생존해있어서 이들의 대담을 통하여 고찰할 수 있었다. 창무관 계보의 발전에 관련된 자료들은 그나마 잘 보관되고 있어서 이를 참고하였다.

제주도체육회 50년사(p.331)에는 창무관 제주지관 설립연도를 1954. 6. 10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창무관 입관 대장’¹⁴⁾에 의하면 1955년 6월 1일로 나타나 있다.

11) 1928년 애월읍 고성리에서 출생, 부모와 일본에 건너가 16세에 귀국, 1946년 서울 중앙전신국 무선과 근무시 YMCA 권범부에 입문, 1954년 제주무선전신국 송신소 통신사로 부임, 1955. 6. 1~1963. 6월까지 교사와 사범으로 제주에 태권도 보급, 현재 부산에 거주함.

12) 조선대 약대 재학중 광주에서 전철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워 고향인 모슬포에 태권도를 보급한 강덕원 제주 1대 관장, 현재 제주시 건입동940-3 거주, 약국경영.

13) 이동회의 제자로 강덕원 계보를 모슬포에 정착시키는데 공헌, 현재 강무체육관 관장.

14) 창무관 입관대장 : 1955~1971년까지 입관자 명단 및 지도자 임명, 지관 창설 현황이 기록된 자료. (원본 문무용 보관)

창무관 제주지관은 제주무선전신국 송신소 통신사로 부임한 문봉준에 의하여 1955년 6월 1일 공수도 창무관 제주 중앙도장을 설립하였다. 창무관은 YMCA 권법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여기서 분리된 계보가 강덕원이다. 따라서 제주에는 두 계파가 들어왔는데 원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각 계보의 도장을 설립하여 지방으로 태권도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제주도에는 마침 YMCA권법부 출신인 문봉준이 제주 무선전신국 통신사로 부임하고 있었다. 문봉준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YMCA 권법부에서 공수도를 배웠다. 그는 “창무관 관장인 이남석으로부터 제주에 창무관 지관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수도 창무관 제주중앙도장’을 제주전신국 마당(제주북초등학교 뒤 뜰)에 설립하였다.”(제주도체육회 편, 2001 : 331) 이시기의 도장은 학교운동장이나 넓은 공터에서 맨발로 수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초대 관장으로 무선전신국 국장인 오기문이 추대되었고, 교사 문봉준, 간사장 김영하(제주시, 현 탐라체육관 관장), 간사 양윤석(본명 영세, 중등 교장으로 정년 퇴임), 김한택, 김명현이었다. 관장은 외부인사로 추대하고 있었으며, 최초로 태권도를 보급한 문봉준은 사범이 아니라 교사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⁵⁾

제주도 창무관에 입관한 수련생들을 보면 1955. 6월 10일에 양윤석이 첫 입관 후 10일 간격으로 김영하, 문상오(한림읍 동명리), 7월 27일에 고훈봉(제주시, 현 도협회 고문), 김명현(제주시)등, 그 해에 20여명이 입관하였다. 그러나 입관번호는 당시 나이를 감안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김영하가 1번으로 되어있다. 창설 다음해에는 135명이 입관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운택(안덕면 화순 출신, 화순에 태권도 보급), 좌봉택(1982~1988 제주도협회 부회장), 현맹호(作故, 후에 창무관에서 청도관으로 이적, 제주 본관장 역임) 등이다. 이들은 이후 제주도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편 모슬포에는 조선대학교 학생이던 이동희에 의하여 태권도가 보급된다. 그는 방학을 이용, 고향인 모슬포에서 사촌동생인 이동호와 후배인 강유근 등

15) 제주도 창무관 입관대장, p.1에 기록된 것을 보면, 1955. 6. 1일 제주중앙도장 창설과 함께 문봉준(본명 문대식)은 교사로 임명되었다가 1956. 6. 15일에 사범으로 임명되었다. 당시의 지도자 명칭은 3단 이상은 사범, 3단 이하 보단까지는 교사로 기록되어 있다.

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것이 모슬포에서 강덕원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동희는 조선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 전 창무관 전남 관장이었던 전철 사범으로부터 1956년 이전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다¹⁶⁾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덕원은 1956년 전철의 스승 박철회와 홍정표가 YMCA권법부에서 분리되어 나와 설립했기 때문에 이동희가 모슬포에 태권도를 보급할 당시의 소속은 강덕원이 아닌 YMCA권법부 소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동희의 스승 전철이 창무관 전라남도 본관장에 임명되었던 사실을 보아도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즉, 1956년 홍정표·박철회가 강덕원을 설립한 후 이동희도 박철회를 따라 강덕원 소속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덕원 계보의 제주도 2기의 대표자는 현동엽, 3기에 강정구, 4기에 조남기(현 제주대 교수)였다. 이동희는 강덕원 제주도 관장으로써 제주도태권도협회 2대와 4대 부회장과 제5대 회장을 역임하며 제주태권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56. 6월 제2대 창무관 제주도 관장에 제주시보(제주일보) 주간인 고정일(전 오현고등학교 교장)을 추대하였으며, 사범에는 문봉준, 교사 ‘장송’¹⁷⁾을 임명하여 태권도 보급에 헌신하였다. 고정일 관장은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구성되면서 제1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촉망받던 인물로써 이후 그가 타계(他界)할 때까지 약 16년 동안 태권도가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의 지주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56년 서귀포에도 창무관 지관이 설립되어 “조선대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온 대정읍 출신 김군택이 교사로 임명되어 김진영, 오성국, 김완중, 허창균 등 20여명이 ‘야외’(현 서귀포기상대 위치)¹⁸⁾에서 수련하였다. 이후 2대 교사에 정원옥, 3대 교사에 박성관으로 내려오면서 태권도를 보급하였다.”¹⁹⁾ 그리고 5월에는 제주시 서문도장을 창설하여 교사에 김영하를 임명하였으며,

16) 이동희 대담, (2001. 11. 15. 10:00~10:20)

17) 진해 해군부대 보육관 사범이었던 박규웅의 제자, 당시 현역 해군상사로 제주 해군 경비부에 배속 받으면서 교사로 임명되었음, 5.16 이후에 폭력배와의 다툼에 앞장섰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당시 같이 참여했던 문무용이 증언하였다.(2001. 11. 23. 17:20~18:00)

18) 박성관 대담(2002. 7. 18. 11:00) : “일정한 수련 장소가 없어서 자주 옮겨다녔다”

19) 김진영 대담(2001. 12. 27. 15:00), 서귀포 태권도 1기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6월에는 창무관 도지부 창설 1주년기념 공수도 심사대회를 관덕정 광장에서 실시하였다. 도의회 의장과 경찰국장까지 초청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이날 심사에서는 격파와 대련 시범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도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갖게 했다.(제주도체육회편, 1991 : 214) 심사관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남석 창무관 본관장 이었다. 제1회 심사에서 승급한 수련생은 3급에 김영하·양윤석·김한택·김명현·고학봉 등 5명이며, 4급에서 7급까지 24명이었다. 제2회 심사는 12월에 문봉준 사범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초단 장송, 보단 김영하 등이 승단 되었다.

당시 승급 체계는 8급·7급…1급까지 하향식이었으며, 3개월에 한번 심사를 하였다. 또한 승단 체계는 보단·초단·2단·3단…으로 상향식 체계였으며, 1년에 2회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승단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이 완전 통합(1978)되면서 승급 심사는 각 도장별 자체 심사로 매월 실시하고 있다. 승단 체계도 바뀌어 보단과 초단이 없어지고 1단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만 16세 이하는 단이 아닌 품(品)이란 명칭을 사용하고있다.

1957년 지도자로서 제주도태권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문무용(입관번호 195번)²⁰⁾과 제주도태권도협회 제5대 부회장을 지낸 박성관(# 481번), 제9대~제10대 부회장을 지낸 고익조(# 259번)·전무이사를 지낸 정건웅(# 346번), 제12~13대 부회장을 지낸 현봉석(# 309)·이사를 지낸 곽학일(# 466번) 등, 전도에서 383명이 입관하여 태권도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 입관한 수련생들을 보면, 시골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시골에서 올라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불량배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이 많았다.”²¹⁾

1957년 6월 30일에는 승단 및 승급 심사가 실시되었다. 심사관은 서울에서 내려온 창무관 관장 이남석, 부관장 김순배, 사범 김득환이었다. 심사 결과를

20) 군 입대 후 해병대 진해 창무관 도장에서 수련하다 전역 후 입관(대담 : 2001.12.3.18:00~19:00) 1976~1982년 도협회 부회장, 태권도가 전국체전에 채택되면서 제주도 제1대 지도자로 제44회~제51회,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코치 및 감독으로 제주도대표선수들을 지도하였음.

21) 문무용 대담(2001. 12. 3. 18:00~19:00)

보면 3단보 문봉준, 2단보 장송, 초단 6급 김영하, 초단 8급 고헌봉·김용섭, 초단 문상오·김영곤·양윤석, 보단 김명현, 문석훈, 최도욱 등 11명이었으며, 유급자는 2급 좌봉택, 3급 문무용, 6급 고익조 등, 모두 102명이 승단 및 승급하였다.(창무관, 1971 : 4) 이들 중에는 후에 제주도태권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고헌봉, 문무용, 좌봉택, 고익조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유단자와 유급자가 된다. 여기서 문무용은 첫 심사에서 3급을 받았는데, 문무용과의 대담에 따르면 “해병대 현역시절 진해 보육관의 창무관 사범 박규웅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다 만기 제대한 후 다시 입관하였기 때문에 3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현역군인으로 제주에서 태권도를 보급한 장송·김덕용 사범도 박규웅 사범의 지도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문봉준은 3단보(補)로써 제주도체육회 50년사에 의하면(제주도체육회 편, 2001 : 331) 문봉준이 제주에 내려올 때에 ‘3단’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잘못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에서 3단보는 3단 이전의 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무관 제주도지부 창설 1주년 기념 및 제1회 공수도 진급심사도 1956. 6. 9일에 실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957. 6. 30일로 나타났다. 1957년 7월 1일에는 제주시에 심사관을 맡긴 중앙 심사관들에 의해 서귀포지관 제1회 심사가 실시되었다. 심사 결과를 보면, 1기생들로 4급에 김완중, 오성국, 5급에 김진영, 허창균, 6급에 현성범, 허형순, 오동춘, 7급에 고두학, 강태숙 등 9명이었었다. 10월 제2회 승급 심사에서는 2급에 오성국, 3급에 김진영, 5급에 고헌철, 박성관, 강광일, 7급에 강익조 등 모두 22명이었다. (창무관, 1965 : 4~7) 3대 서귀지관 교사를 지낸 박성관, 14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었던 강익조가 승급 심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58년도에는 태권도 보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제주시 내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시 학교에 유학한 시골학생들이 유단자가 되어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보급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유당 정권의 혼란기로 호신을 위하여 태권도를 배우려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도장명칭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중앙도장이 모체가 되어 제주시에

는 수련장소의 지명 다음에 도장, 농촌 지역에는 지관이라고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관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을 지관장으로 추대하였고, 사범은 문봉준 1명이었으며, 교사는 3단 이하의 유단자들로 임명되었다. 당시 도장은 대부분 학교운동장이나 마을 공터에 설치되어 맨발로 수련을 하였다.

모슬포에서는 강덕원 출신 이동호에 의하여 태권도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때 고등학생이었던 강정구가 태권도에 입문하였다. 이후 그는 모슬포에 거주하면서 대정읍과 중문지역에서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제주도태권도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사실 강덕원은 강정구에 의하여 대정읍을 중심으로 제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동회는 제주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양성에 전념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슬포에 초창기 태권도 “수련 장소는 고아원 옆 콩나물 공장 터의 흙바닥에서 맨발로 시작하여, 읍민관 옆 창고로, 다음에 마을 향사로 옮겨 다니면서 수련하였다. 모슬포 강덕원에서는 수많은 유단자를 배출하였으나 현재 태권도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단자는 스페인에 태권도 사범으로 진출한 고봉래, 미국에 임문규, 서울에는 강희택, 신달승, 부산에는 허희식 등이 있다.”²²⁾

1959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승만 대통령 탄신 기념 경축 태권도 시범에 제주에서는 강덕원 출신인 강정구·조남기·고선식 등이 참가하여 갈채를 받았으며, 제주에 원정온 한국 해군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관덕정에서 시범격파와 대련을 위주한 연무대회를 가져 제주도 태권도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제주도체육회 편, 1992 : 214) 그리고 제11회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정기 승단심사가 당시 용담동에 소재 했던 제주대학교 강당에서 실시되었는데 4단 문봉준, 3단 장송 등 고단자가 배출되었으며, 3단으로 승단된 현역 해군상사인 장송은 제주중앙도장 부사범으로 임명되었다.(창무관, 1971 : 2)

제주도 태권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창무관 중앙도장 사범들은 문봉준(1955. 6. 1~1956. 6. 14까지 교사 이후 3단 승단 후 1963까지 사범), 장송(부사범 1959~1961), 김영하(1961~1963), 김덕용(1963~1965), 문무용(1965~1974), 고학봉·고익조·이홍식, 좌봉택·정건웅(1970~1978) 등으로

22) 강정구 대담(2001. 11.27. 14:00)

<표 2> 보급기의 도장현황

설립	도 장 명	소재지	관장	지도자
1955	창무관제주중앙도장	제주전신국	吳基文	문봉준
1956	강덕원모슬포도장	모슬포	이동희	이동희
1956	창무관서귀포지관	기상대 터	康有謙	金君宅
"	서문도장	무근성		金靈河
1957	동문도장	해군경비부대		張 淞
"	중앙도장	제주시		高鶴奉
"	남문도장	남문통		金澄坤
1958	서교도장	제주서교		金靈河
"	서부제중도장	제주중학교		金容燮
"	북교도장	제주북교		文碩勳
"	제대도장	구 제주대		양윤석,金澄坤,高翊朝
"	동부오고도장	구 오현고		金成珠
"	동부성인도장	"		高翊朝
"	YMCA도장			高鶴奉
"	한림지관	북군 한림리	高宗錫	張景勳,姜行眞,洪富一
"	외도지관	제주 외도동	康龍成	李明吉, 梁泰玉
"	화순지관	남군 화순리	高文玉	河雲澤
"	김녕지관	북군 김녕리		金斗洪
"	위미지관	남군 위미리	梁景生	梁泰玉, 高珠滿
"	광령지관	북군 광령리		秦煥祐
"	법환지관	서귀 법환동		高時奉
"	하귀지관	북군 하귀리		文武用
1960	장전지관	북군 장전리	孫昌萬	洪元玉
"	함덕지관	북군 함덕리	韓在源	元金奉, 金完泰
"	귀덕지관	북군 귀덕리		李洪植
"	해안지관	제주 해안동		高聖中
"	연동지관	제주 연동		金益宗
"	서호지관	서귀 서호동	金性洙	玄漢英

(출처 : 창무관 도장 창립일지, pp.1~2. 강정구 대담, 2001.11.27)

이어졌으며, 각 지관에는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관장으로 영입하였고, 교사나 조교를 통하여 태권도보급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각 도장의 심사위원에는 문대식, 김영하, 김덕용, 문무용 등이었다.(창무관, 1971. 참고)이 시기에는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제주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까지 28개 도장이 설립되어 있었음을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1961년까지의 제주에 소개되었던 태권도는 공수도란 명칭으로 호신을 위한 무술 형태의 품새(型)위주였으며, 겨루기도 차고, 치고, 찌르고,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일본의 가라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2. 전환기(1962~1969)

“1962년 6월 20일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로 ‘대한태수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의 전신)에 가입”(국기원 편, 1987 : 32)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주에서도 “창무관 측의 문봉준(문대식)·문무용·정건웅·고학봉·좌봉택, 강덕원 측의 이동희·현동엽·강정구, 청도관 측의 현맹호 등에 의해서 ‘대한태수도협회 제주지회’를 조직하여 제1대 회장에 창무관 제주도 2대 관장인 고정일을 추대하고, 전무이사에는 창무관 사범 문봉준이 임명되었다.”(제주도체육회 편, 2001 : 332) 이때부터 경기 태권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제주도태권도를 이끌어 온 회장단을 보면 <표 3>과 같다. 이들은 어려운 시절 제주도태권도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 준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공헌한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1962년 8월 14일에 실시된 창무관 승단 심사에서는 5단 문대식, 4단 3급 장송, 4단 김영하, 3단 3급 문무용, 3단 4급 양윤석, 3단 5급 박성관, 3단 6급 정건웅, 3단 7급 고익조·문상오·좌봉택·고학봉, 3단 곽학일·현봉석, 2단 4급 이흥식, 2단 서장운·안보길, 초단 4급 김두은, 초단 8급 진춘배 등 총113명이 승단(창무관, 1956 : 61~65), 제주태권도 ‘1세대’²³⁾ 고단자들이 탄생되기 시작

23) 1950년대 태권도에 입문하여 유단자가 된 제주태권도인.

하였다. 4단을 받은 김영하는 중앙도장 사범으로 임명되었으나 다음해 탐라체육관을 설립하여 제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²⁴⁾

<표 3> 제주도태권도협회 역대 회장단과 재임 기간

대	성명	재임기간	부회장	전무이사
1	고정일	1963~1965		문대식
2	이동성	1965~1969	이동희, 김두은	문무용
3	임희준	1969~1971	김두은, 강정구	이명길
4	유원철	1971~1974	김두은, 이동희, 이명길	좌봉택
5	이동희	1974~1975	김두은, 김봉조, 박성관	진춘배
6	유기천	1975~1976	고유진, 고춘호, 곡윤표	장의전
7	송희주	1976~1978	고유진, 고춘호, 장의전, 문무용	고익조
8	장의전	1978~1982	고유진, 고춘호, 김재호, 문무용	고익조
9	양성후	1982.2~6.26	고유진, 고춘호, 고익조, 좌봉택	정건웅
10	송봉규	1982~1985	고춘호, 고유진, 고익조, 좌봉택	정건웅
11	정륜사	1985~1988	고중익, 김대근, 좌봉택, 정건웅	'85 신상은 '87 양광호
12	정륜사	1989~1990	현봉석, 김대근, 이상익, 진춘배	'89 강용기
13	정이수	1991~1992	현봉석, 고병주, 정광옥, 진춘배	양광호
14	양세훈	1993~1995	'93-94 신상은, 문기호, 김창기. '95 신상은, 문기호, 김창기, 고우방.	조동석
15	고우방	1996~1996	신상은, 김창기, 양봉석, 신관홍	조동석
16	고우방	1997~2000	김창기, 김창환, 강용기, 양봉석, 신관홍	조동석
17	고우방	2001~	김창기, 김창환, 신관홍, 고상후, 최영범	조동석

(출처 : 제주도태권도협회)

24) 김영하가 기록한 ‘공수도 탐라관 전도중앙도장 입관 명부’를 보면 1963. 1. 20일자로 창무관 출신 현봉석, 박성관, 원금봉, 양영세, 안보길 등, 50여명 명단이 기록되어있다. 그 당시 상황을 검토하여 보면 김영하는 1962년 4단을 받고 사범으로써 중앙도장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음해 현역 해군 상사인 김덕용이 사범으로 부임하고 문무용 또한 사범으로 임명되었었다.(창무관, 1956. 참고)

그러나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계보를 통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탐라체육관은 계보로 등록이 안되고 후에 다시 창무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1962. 10. 11일 서울에서 처음 치러진 공인단 심사에 제주에서는 강덕원 출신 강정구 혼자 참가하였다.²⁵⁾ 그리고 강덕원에서는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대정읍을 중심으로 1960년대 안덕면 서광리와 중문리에 지관을 설립하였다. 강정구에 의하면 중문지관은 조남기가 중문중학교에 교사로 재직할 당시였기 때문에 쉽게 지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남기가 제주대학교 교수로 직장을 옮기면서 중문에서의 태권도보급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문에서의 대표적인 강덕원 출신은 제5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박정균과 고복래를 들 수 있다. 고복래는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스페인에 진출하여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다.

1963년 2월 10일 제주도태수도협회 제주지회는 제주도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며, 제1회 공인단 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창무관에서는 하효지관과 세화지관을 설립하여 태권도 보급과 선수 발굴에 꾸준히 노력하게 되며, 이때부터 협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최초의 경기 규칙은 1962년 11월 3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제정되었다. 당시의 주요 내용은 경기장의 면은 8m×8m 정방형 마루바닥이었고 심판원 구성은 6단 이상 고단자로 구성되는 배심원 2명과 4단 이상인 주심 1명, 부심 4명 등 7심제였고 12개 경고(당시 '주의')와 4개의 감점 사항, 그리고 득점은 정확한 가격에 의한 1점제였다. 그후 4번째 규칙개정(1967.3)에서 몸통부위 1점, 얼굴에 강한 공격시 2점, 그 외 1점 등 차등 점수제를 채택했다.(1977년까지 시행) 최초의 경기 규정은 선수의 복장은 호구 또는 도복착용, 참가자격은 초기부(3급~초단), 중기부(2~3단), 고기부(4~5단)로 구분하였으며, 경기 종류는 개인전, 단체전(5명의 선수로 段 제한 없음), 경기시간은 1분 30초 2회전 중간휴식 30초, 체급 및 체중은 경량급 56kg미만, 중(中)량급 56~62kg까지,

25) 강정구 대담에 의하면 서울에서 실시한 공인단 심사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 때 외국 원정 한국대표(12명) 선발전을 겸하고 있었는데 306명이 참가하여 24명안에 들어있었다고 하였다.(2001.11.27.14:00~15:30)

중(重)량급 62~68kg까지, 무제한급 68kg이상이었다.

이러한 경기규정을 만들고 1963년 10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 시범경기로 채택되었다. 제주도선수단은 제주신문사 팀으로 출전하여 입상에는 실패하였으나 가능성을 시사했던 대회였다.

1964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체육대회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일반 단체전 외에 남자고등부 단체전, 일반중기부(1·2단), 일반고기부(3단 이상)가 포함되었으며, 체급에서도 경량급, 중(中)량급, 중(重)량급, 무제한급이던 것을 편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등, 8체급으로 변경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창무관 문무용 사범이 지도로 일반 고기부 밴텀급에 출전한 진춘배(作故)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제주도 태권도의 1호 메달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9월에는 재일 동포 태권도선수단(좌대권 인술)이 내도하여 제주시민회관에서 제주대표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시·도간 경쟁이 심화되자 선수육성에 노력하게 된다. 여기에 선수발굴과 선수훈련에 앞장선 사범들을 보면 창무관에서는 문무용, 고헌봉, 좌봉택, 정건웅, 박성관, 진춘배 사범이었으며, 강덕원에서는 이동희, 강정구, 조남기 사범이었다. 특히 창무관에서는 제주대표선수 육성을 위해 승급 심사에서 장래성이 있는 수련생들을 특별관리하였는데, 이들을 지관 심사에 대련 상대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단심사에도 응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64년 승단 및 승급 심사에 초단 8급 이송규, 다음해 3월에 초단 신상은, 6월에 초단 4급 김창환, 5급 나종대, 이동건, 최영배 등이 유단자가 되었다.(창무관, 1956 : 83) 이들은 60년대 중반부터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도태권도 2세대²⁶⁾로써 전통을 이어갔다. 또한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창무관에서는 농촌 산간지역인 애월읍 어음리와 한경면 저지리에 지관을 설립, 어음지관 교사에 양을용, 저지 지관 교사에 박봉수를 임명하였다.(창무관, 1965 : 2) 1965년도에는 ‘대한태수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

26) 1세대 태권도인들로부터 1960년대에 지도를 받고 유단자가 된 제주 태권도인

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주도협회에서도 '대한태권도협회 제주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창무관 제주중앙도장 사범이며 현역 해군상사이던 김덕룡이 진해로 전출되면서 문무용이 사범에 임명되었다.(창무관, 1956 : 78) 태권도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두 번째로 참가 한 제4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표 4>와 같이 금 2, 동 5개를 획득하여 경기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기 지도자인 문무용과 이동희의 노력이 대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태권도부문 제주도체육회 경기상은 제45회 전국체육대회서 은메달을 획득한 진춘배가 받았다.

1966년 12월에는 제주도에에서 최초의 태권도대회인 제1회 도지사기 및 교육감기 전도태권도대회가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제주도에 태권도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창무관 출신들이 대회 경비를 마련하였으며, 창무관 제주중앙도장이 주최 및 주관이 되었다.(제주도체육회 편, 1991 : 217) 제2회 대회까지 창무관에서 주최하였으며, 이후 제주도태권도협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이다.

1967년 3월 경기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득점 사항에 주먹 1점, 발기술서는 면상 2점, 뛰어차기 2점, 두발당상 2점, 뛰어 옆차기 2점 몸돌려차기 2점, 장칼 1점, 찌르기 1점, 등주먹 1점, 매주먹 1점을 주도록 하였으며, 무승부일 때는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이기도록 개정되었다. 이 때까지도 장칼, 등주먹, 매주먹 등, 손기술에 의한 득점 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강원식, 이경명. 1999 : 121) 창무관에서는 서귀포지역에 태권도 보급과 선수 발굴을 위하여 폐관되었던 법환도장에 이동건, 서호도장에 신상은, 신설된 강정도장에 원길표, 하효도장에 허경부(작고)를 교사로 임명하였다.²⁷⁾

<표 4>에서와 같이 제4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모두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중등부에서 모두 서귀중학교 선수들이 입상한 배경에는 제주태권도 1세대들인 문무용과 박성관이 꾸준히 지도한 결과였다. 이후 입상자들 중 좌봉

27) 이동건은 제주시 삼양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법환도장 교사로, 신상은은 제주시 출신으로 제주상고를 졸업하면서 서호도장 교사로 임명되어 군 입대 전까지 태권도보급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원길표와 허경부는 제주대학 이농학부 학생이던 한림읍 귀덕리 출신 이홍식에 의하여 태권도를 배우고 교사로 태권도 보급에 노력하였다.(문무용 대답, 2002. 2. 20. 18:00~19:00)

택, 정건웅 등은 협회 임원으로, 강화룡·최영배·김순경 등은 도장 교사로, 김창환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선수들을 지도하여 제주태권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도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도세와 관세가 약한 제주도선수들은 편파적 판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²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주도협회 임원들과 창무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도에 있는 관 통합을 모색하게 된다. 제주도체육회 50년사(p.338)에 의하면 1967년 3월 13일에 제주지역에 있는 각 관이 통합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제주도태권도협회가 1968년 7월 10일 대한태권도협회장 앞으로 발송했던 공문서 원본에 의하면 “본 도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에 있는 각 도장(창무관, 청도관, 강덕원)을 통합하여 본 도의 태권도를 건전한 스포츠로서 더욱 발전시키며 도민들에게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체를 이루었던 각 도장의 명칭을 통합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를 보았습니다”²⁹⁾ 라고 하여 회의 일시는 1968년 7월 6일 하오 4시, 장소는 제주도체육회 사무실, 참석인원은 창무관에서 문무용·고학봉·정건웅·양대경·김두은·좌봉택, 강덕원에서 강정구·조남기·정공은, 청도관에서 현맹호였다. 각관 대표로 이동희(강덕원), 현맹호(청도관), 문무용(창무관)의 서명하여 가칭 ‘대한태권도협회 제주관’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7월 10일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한 공문에는 가칭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중앙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관장은 고정일이라고 되어있다. 어쨌든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중앙협회에서 보다 10여년 먼저 통합되었지만 결국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를 반려시켜 다시 관 체제로 환원(1974)되어 버렸다.(제주도체육회 편, 2001 : 338)

이러한 통합과정에서도 한림에는 군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전역한 장영섭에 의하여 오도관 도장이 개관되었는데 이후 오도관 도장은 제주시 관덕정 옆 옛 법원자리로 이전하면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미미하였다.

28) 문무용 대담(2001. 12. 17. 18:00~19:00) : “이 시기부터 편파적 심판 판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결국 제5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경기 도중에 포기하고 귀향 해버렸다.”

29) 제태협중 제1호(1968. 7. 10).

<표 4> 전환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년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44	1963	전주	일반 단체전, 선수 : 이홍식, 고석홍, 원금봉, 고선식, 정건웅, 이인석 예선 : 승(제천체육회), 준준결승 : 패(지도관춘천지관)	문무용	
45	1964	인천	은1 : 진춘배(일반 고기부 밴텀급) (남고 단체, 일반 고기부, 중기부, 개인전)	문무용	
46	1965	광주	금2 : 김창환(제농고), 양동훈(제상고) 동5 : 이송규(서농고), 신상은(제상고), 안영근(고기부), 정건웅(), 좌봉택()	문무용	이동희
47	1966	서울	금4 : 최영배(제일고), 라종대(오현고), 김송형(제상고), 김순경(중기부) 은1 : 정건웅(고기부) 동4 : 이동건(제일고), 서장운(고기부), 정공은(고기부), 박성관(고기부)	이동성	문무용 이동희
48	1967	서울	금1 : 강화룡(서귀중) 은4 : 강달삼(서귀중), 김자선(서귀중), 정건웅(고기부), 좌봉택(고기부) 동8 : 최영배(제일고), 강석관(서농고), 강무훈(오현고), 김창환(중기), 진성철(중기부), 김순경(중기부), 박성관(고기부), 이만철(중기부)	문무용	고학봉
49	1968	서울	은2 : 최영배(제일고), 박성관(고기부) 동7 : 부영배(오현중), 강방익(서귀중), 현봉철(제농고), 서장운(고기부), 정건웅(), 이만철(중기부) 강창길()	문무용	조남기 좌봉택
50	1969	서울	금2 : 진춘배(고기부), 김창환(고기부) 동3 : 고영수(서귀중), 강여익(서귀중), 김창기(중기부)	문무용	정건웅 고학봉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별책, 2001:87~96. 참고)

1968년 6월 경기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선수의 복장은 이전까지 의무사항이 아니던 호구(당시 대나무 호구)착용을 이 때부터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다(강원식·이경명, 1999 : 122).

1969년도 제주도체육회 공로상에는 제주에 최초 태권도를 보급한 문봉준 사범이, 경기상은 제50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창환이 받았다. 이 시기에 전국체육대회 제주도 대표선수들을 육성한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창무관에서는 문무용·고학봉·박성관·정건웅이며, 강덕원에서는 이동희·조남기·강정구였음을 알 수 있다.

3. 성장기(1970~1979)

1970년도 제51회 전국체육대회서는 심판 판정에 불복 선수단을 철수시켜 메달이 없는 불명예스러운 대회가 되었다. “원인은 편파적인 판정 때문에 제주도 선수단의 항의로 경기가 중단되었는데, 대한체육회 소청위원회에 정식 소청하고 선수들은 남은 경기에 출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소청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 없이 다음날 경기를 속행하려하자 19명의 선수가 예선을 통과하고 4명의 선수가 동메달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를 포기하고 귀향하였다.”³⁰⁾ 제주도태권도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대회였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5회 전도태권도대회가 개최되어 대정중학교와 오현고등학교, 대정도장이 우승하였다.(제주도태권도협회 입상대장 참고) 강덕원에서 중학교부와 일반부가 처음으로 우승하였다. 강정구 사범과의 대담에 의하면 그 당시는 “창무관 계열과 항상 경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우승하여 대단한 보람을 느꼈다” 고 하며, 지금도 이 대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³¹⁾

1970년에 현대식 체육관이 제일교포 김봉조에 의하여 제주시 서문다리 북쪽(현 황우체육관)에 금산체육관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어 일반도장과 경찰무도장을 겸하고 있었다. 종합 무도체육관 성격을 띤 이곳에서는 태권도부, 유도부, 검도부가 있었는데, 태권도부 사범에는 창무관 출신 현역 경찰인 현봉석

30) 문무용 대담(2001. 11. 28. 18:00~19:00)

31) 강정구 대담(2001. 11. 27. 14:00)

이었다. 그 당시 금산체육관은 제주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은 도장이었으므로 제54회와 다음해 제5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들의 합숙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제주도태권도발전에 기여하였다.

1971년 6월 제주중앙도장(제주시 동문로터리 구 동신화물 4층)에서 실시된 제29회 대한태권도협회 제주지회 승단 및 승급심사에는 제주도 전역에서 참가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3단에 최영배·오용진, 2단에 강중식, 초단 2급에 양광호, 초단 5급에 양성엽, 보단에 안영익, 김동훈 등 유단자 51명과 2급에 최학기·고시육 3급에 김응일, 4급에 백종오·허종순, 5급에 강광윤·이순익, 6급에 오기영·강창두, 7급에 문병희 등, 유급자 137명이었다.(창무관, 1965 : 85) 뒤에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70년대에 대부분 제주도 대표 선수가 되어 제주태권의 명예를 높이게 된다.

이 시대의 전국체육대회 제주대표 선수선발과 훈련과정을 보면 태권도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름방학이 되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태권도도장 수련생들은 모서수련회(暮署修練會)에 참가하도록 한다. 합숙 기간은 2주일 동안이었으며, 식비는 참가자 부담이었다. 장소는 해수욕장 가까운 초등학교였다. 훈련 방법은 군대와 같이 엄하고 규칙적이었으며, 여기에 참가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심사와 전국체육대회 제주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선발된 선수는 2개월 동안 합숙훈련에 필요한 쌀과 부식비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였다. 지도자들은 제주도 태권도 1세대들인 문무용, 고학봉, 좌봉택, 정진웅, 진춘배가 주축이 되었으며, 무보수로 헌신했다. 훈련은 철저한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훈련에 실증을 느껴 한 밤중에 도망가버리는 선수들도 종종 있었다. 제주도태권도는 이렇게 헌신적인 지도자와 고된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2년부터 3년 동안은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였다. 그 이유로는 타 시·도 보다 먼저 관의 통합됨에 따라 계보도장 간의 경쟁의식이 감소, 2세대 지도자들의 군입대로 인한 선수와 지도자의 부족, '경기규정 개정'³²⁾에 따른 적응 부족으로 보인다.

<표 5> 성장기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비고
1	1972	서울	은1 : 이순익(효돈), 동1 : 양성무(서귀)	고학봉	진춘배	8체급
2	1973	대전	금1 : 이승현(효돈) 동1 : 이순익(효돈)	박영옥	김창환	
3	1974	서울	은1 : 한주훈(오현) 동2 : 문병희(서귀), 문영철(오현중)	정건웅	정건웅	
4	1975	부산	동1 : 허종오(효돈중)	장의전	김창환	
5	1976	서울	동1 : 고성진(남주중)	고학봉	김창환	
6	1977	서울	은1 : 문민진(서귀) 동1 : 배성룡(서귀)	김창기	오행선	
7	1978	대전	동3 : 차기만(제일중), 정용환(서귀), 김충욱(중앙중)	고학봉	이동건	
8	1979	청주	은1 : 정용환(서귀) 동1 : 김효상(남주)	고학봉	이동건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부록, 2001:228~239. 참고)

1972년 제주도태권도협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앙협회 김순배 심판부장을 초청하여 심판 강습회를 개최, 지도자와 심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지시에 따라 유급 자들이 수련하던 팔괘 품새(型)를 현재의 태극 품새로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중학교부를 전국스포츠소년대회란 명칭으로 분리하여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적 및 지도자들을 <표 5>에서 보면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는 대전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뿐이었으며, 메달 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대회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소년체육대회에서 효돈 중학교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것은 하효 도장에는 양광호(현직 경찰)가 교사로 있으면서 수련생들 중에서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

32) 1972. 3월 경기 규정 개정 : 샷보대 착용 의무화, 득점부위는 양 옆구리, 아랫배, 명치, 안면, 주먹공격은 완전한 자세로서 단일공격이라야 득점, 발 공격은 안면을 공격하여 쓰러지거나 비틀거려야 득점, 발등으로는 안면만 득점 인정.(강원식·이경명, 1999 : 123)

고 있었으며, 효돈중학교에는 태권도선수 출신인 김창환 교사가 부임하여 선수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도장에서의 사회체육과 학교에서의 엘리트체육이 연계되어 육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독에는 제주태권도 1세대인 고훈봉, 코치에는 2세대인 김창환 이동건이 주축이 되었었다.

1973년에는 인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전문학교가 설립되어 무도와 태권도 전공 80명을 모집하였다. 그 시절에는 태권도선수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입학, 새로운 경기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선수는 여기에 입학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이 늦어져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성적이 저조하게 된다. 한편 군에서 만기 제대한 이동건이 태권도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 2기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어 제5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코치로 제주도태권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3년 고명한 인품과 사회적 명성으로 태권도가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의 지주역할을 하였던 창무관 고정일 관장이 작고하였다.³³⁾ 고정일 관장 작고 후 “서울에 있는 창무관 전국 본관장 이남석에게 김영하, 김두은, 문무용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3대 창무관 제주도 관장에 문무용, 부관장에 김영하·김두은이 임명받았다.”³⁴⁾ 그러나 관이 통합되던 과도기적 시기였으므로 체계적으로 조직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1974년 5월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경기규칙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득점부위는 발(발등, 앞축, 발날, 뒤축)로 얼굴, 옆구리, 아랫배, 명치 공격을 인정하였으며, 얼굴은 비틀거렸을 때 2점, 맞았을 때 1점, 몸통(수권, 족기)은 1점, 득점 부위가 아니라도 주먹이나 발로 공격하여 넘어뜨렸을 때 1점으로 개정하였다.(강원식·이경명, 1999 : 124~125)

33) 제1대 제주도태권도협회장(1963~1965)과 제2대 제주도 창무관 관장(1956 ~ 1973).

34) 문무용의 대답(2001. 12. 28. 13:00)

<표 6> 성장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51	1970	서울	☆ 동4 개를 확보하였으나 불공정 판정으로 선수단 철수 : 강대영(남중부), 고성도(남중부), 최영배(일반중기부), 이동건(일반중기)	문무용	정건웅. 고학봉
52	1971	서울	금1 : 양성무(서귀중) 은4 : 강용기(일반중기부), 강방익(중기부), 최영배(고기부), 김창환() 동6 : 김창현(효돈중), 엄정호(서귀중), 강중훈(오현고), 박정균(중문원예고), 강여익(중기부), 고복래(고기부)	이명길	정건웅, 진춘배
53	1972	서울	은1 : 강용기(중기부 라이트) 동4 : 이덕부(중기부), 강여익(고기부), 허송(고기부), 강무훈(고기부) ※고등부 노메달	좌봉택	정건웅, 곽학일
54	1973	부산	은2 : 오일호(일반 중기부), 강용기(일반 고기부) 동3 : 오상현(제일고), 양남현(오현고), 이동건(일반 고기부)	좌봉택	정건웅, 고학봉
55	1974	서울	동6 : 허종순(오현고), 강민호(남주고), 이계형(오현고), 오상현(중기부), 고영수(고기부), 강성율(고기부)	진춘배	진춘배
56	1975	대구	금2 : 김완기(고기부), 강성율() 동3 : 허종순(오현고), 신진성(오현고), 오행선(중기부)	장의전	고학봉, 전건웅, 이동건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57	1976	부산	금5 : 김동훈(오현고), 허종순(중기부), 강민호(), 오행선(), 오선홍(고기부) 은3 : 강창효(제농고), 정용언(중기부) 동5 : 양동언(남주고), 강희택(중기), 김완기(고기부), 강성울(고기부), 강화룡(고기부)	문무용 고익조	고학봉, 이동건
58	1977	광주	금2 : 강민호(중기부), 김동훈(중기부) 은1 : 최학기(남주고) 동4 : 강명덕(남주고), 최철영(오현고), 장승화(오현고), 강중식(고기부)	고학봉 고익조	이동건, 김창기
59	1978	인천	금3 : 최철영(오현고), 이순익(고기부), 김동훈() 은1 : 이종찬(중기부 라이트) 동2 : 강민호(고기부), 이계형()	고학봉 고익조	신상은, 이동건, 김창환
60	1979	대전	은2 : 강문호(중기부), 장승화() 동1 : 김성훈(오현고)	고학봉 고익조	이동건, 신상은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별책, 2001:98~113. 참고)

1977년 “아라비아 숫자로 부르던 각 관(1관~9관)을 통합, 국기원에 총본관을 만들어 관장에 대한태권도협회장인 김운용, 부관장에 지도관 관장 이종우, 청도관 관장 엄운규, 사무총장에 창무관 관장 이남석이 선임되었으나 1978년 완전 통합될 때까지는 계보(관)를 잠정적으로 인정 각 관장에게 승단 심사 추천 권을 주었다.” (강원식·이경명, 1999 : 98~99)

<표 6>에 의하여 성장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들을 보면 : 제5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경기를 포기하여 귀향함으로써 가장 오점을 남긴 대회가 되었으며, 이후 침체기를 맞다가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모두 13개

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위를 하였다. 제주도태권도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과 코치의 노력도 대단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공동 우승이라는 경기규정이 있었고,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태권도선수들이 재학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인천체육전문학교 태권도부 주장이었던 오행선 선수의 영향력도 있었다. 당시 인천체육전문학교에는 각 시·도 대표선수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입수가 가능했고, 새로운 경기기술 전수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가 인천체육전문학교 선수인 경우는 서로 비기는 작전을 구상하여 공동우승이 3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상위 입상이 가능했었던 것이다.³⁵⁾ 이 대회에서의 성적은 제주도태권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메달 5개라는 기록은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등부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태권도 2세대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는 오현고등학교 교련교사로 부임한 신상운이 있었으며, 서귀포에는 남주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한 김창환이 있었기에 고등부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의 전국체육대회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감독에는 1세대 태권도인들이 맡고 있었으며, 코치에는 1세대 지도자에서 2세대 지도자로 세대교체를 하던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에는 벌써 소속 관을 떠나 개인 도장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여 “1977년에는 <표 7>에서와 같이 20개 도장이 있었다.”³⁶⁾ 외적으로는 중앙에서의 관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인 도장이라 하기보다는 각 계보(館)의 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계보도장인 경우 입관비, 단심사비를 본관에 납부해야 하나 이 시기에 개관한 도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도장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계보 별로 살펴보면 창무관 계보가 13개 도장으로 가장 많고, 창무관에서 이탈했던 탐라관 계보가 4개 도장, 청도관, 강덕원, 오도관 계보가 각각 1개 도장이었다. 여기서 특이

35) 당시 감독으로 참가한 문무용 대담(2001. 10. 23. 18:00)

36) 제주도태권도협회, 도장실태조사보고서, 1977. 2. 4. 공문 및 도장 등록부 참고.

한 것은 도장 숫자로 보아 서귀포지역 태권도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성장기의 도장 현황

도 장 명	위 치	관 장	계 보(館)	비 고
탐라체육관	제주시 1도 2동	김영하	창무관(탐라계)	
대한체육관	제주시 남문로	김종철	"	
삼양도장	제주시 삼양동	김인혁	"	
청 도 관	제주시 용담1동	강국원	청도관	
오 도 관	제주시 구 법원	장영섭	오도관	
중앙도장	제주시 동문로타리	고학봉	창무관	
서귀도장	서귀포시민회관	문무용	"	
토평도장	서귀포시 토평동	양태준	"	
서호도장	서귀포시 서호동	오완주	"	
하호도장	서귀포시 하호동	강덕화	"	
강정도장	서귀포시 강정동	김명춘	"	
하원도장	서귀포시 하원동	원길표	"	
한남도장	남원읍 한남리	오정원	"	
가시도장	표선면 가시리	송성언	"	
동양체육관	대정읍 하모리	강정구	강덕원	
신엄도장	애월읍 신엄리	정진언	창무관	
세화도장	구좌읍 세화리	한도실	"	
납읍도장	애월읍 납읍리	김순경	"	
광신체육관	제주시2도1동	한관용	창무관(탐라계)	
서귀중앙	서귀동 293	오행선	창무관	

(출처 : 제주도태권도협회 1977. 2. 4부 발송공문, 도장등록부 참고)

이 시기에 오도관에서는 장영섭 관장이 병환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교사이며 태권도 보급에 노력하고 있던 '김형우'³⁷⁾와 오도관 사범으로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김명철이 관장직을 놓고 경쟁한 끝에 김형우가 오도관 제주도 관장으로 임명되었다.³⁸⁾

1978년 제8대 회장에 제6대 전무이사과 제7대 부회장을 지낸 장의전³⁹⁾(作故), 태권도인 부회장에는 문무용(文武用), 전무이사에는 고익조(高翊朝)가 선임되었다. 장의전회장은 “태권도인들과 함께 재일 교포 홍성인·백위개 등으로부터 제주도태권도회관을 기증 받음으로써 이후 태권도합숙훈련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선수 육성과 행정의 체계를 이룩하는데 노력하였다.”⁴⁰⁾

1978년 8월 7일은 현대 태권도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만하다. 태권도 총본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태권도 계의 숙원이던 관을 폐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태권도협회에서도 제주도에 있는 도장들을 제주도협회 산하도장(傘下道場)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2년까지 등록한 도장은 제주시에 탐라체육관(김영하), 광신체육관(한관용), 대한체육관(김종철), 서귀포에 서귀중앙도장(오행선), 서귀도장(문무용), 남제주군 대정에 동양체육관(김성남) 등, 6개 도장뿐이었다.⁴¹⁾ 관 통합과정에서 태권도 보급의 산실이었

37) 김형우의 대담(2001. 12. 21)에 의하면 “월남전 태권도 교관단,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장, 오도관 3대 관장을 지낸 박병오(作故)사범이 나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오도관 제주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태권도연맹(1994)과 제주시태권도협회(2001)를 조직하였다.

38) 김명철의 친동생인 김명석(현 강호체육관 관장)대담 (2002. 2. 18) : “형은 관장 임명에서 탈락하자 도장을 나에게 넘기고 태권도계를 떠났다. 그리고 김형우가 오도관 계보의 도장관장들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모임을 갖고 있으나 나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39) 그는 당시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로서 태권도 원로들과의 화합을 중요시하였음은 물론, 물심 양면으로 태권도 발전에 헌신한 회장이라고 태권도인들은 평가하고 있다.

40) 문무용 대담(2001. 11. 2. 17:00)에 의하면 “1974년 재일 교포 홍성인은 교포 102명의 성금을 모아 제주시 용담1동 244-1번지에 오도관 도장을 짓고 있었다. 이를 알아낸 문무용, 고학봉, 좌봉택, 정건웅 등, 제주도태권도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던 태권도인들이 앞장서서 홍성인을 찾아가 설득한 결과 5년 후 완공됨과 동시에 협회로 넘겨주어 오늘날 제주도태권도회관(대지 72평, 연건평 94평인 3층)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홍성인과 백위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집행부가 취임하면서 이를 태권도협회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41) 제주도태권도협회, 도장등록 자료 참고, 1978.

던 관 산하의 도장은 몇 개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발전기(1980~1989)

이 시기는 태권도 도장 설립이 활성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강습회 제주 개최, 제주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2위, 제2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태권도대회 유치, 각 학교별 전국대회 출전의 활성화, 제주도태권도 유단자회 조직, 국가대표선수의 탄생, ‘체육을 전공한 태권도 지도자들’⁴²⁾의 등장 등, 제주도태권도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보가 통합됨으로 인하여 개인도장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태권도 사범이 직업화로 선수 양정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도장 운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선수확보가 어렵게되고, 전국체육대회 성적도 저조하였으나 이후 태권도 선수 출신들이 태권도도장을 설립하면서 우수선수들을 배출하고, 협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력도 향상하게 된다.

이 시기의 태권도 도장은 체육관이란 명칭으로 대거 설립되었는데 이는 잘못 표기된 명칭으로 보인다. 도장(道場)이란 ‘무예를 수련하기 위해 설치한 집이나 장소’(신기철·신용철, 1981 : 886)를 말하며, 체육관이란 ‘실내에서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비된 건물’(신기철·신용철, 1981 : 3267)이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장은 ‘도장’이라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기에는 관 통합으로 계보도장들이 폐쇄되어 태권도 보급 및 선수육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제주도에 선수가 몇 명 안되었지만 태권도 1세대들의 집중적인 훈련과 개인에 맞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으나 지도자들의 세대교체, 비경기인 출신 사범들이 선수육성 기피(忌避), 선수육성으로 인한 수련생 감소 등등으로 인하여 성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협회에서의 선수관리가 전국체육대회 성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42) 태권도선수 출신 제주도내 중등체육교사 : 김창환·안영익·이철호·오상현·양남현·정용언·강민호·임성훈·오선홍·이계형·진성주·서봉해·허종순·김동훈·강창효·최학기·이종찬·강명덕·오기녕·김효상·양승관·한용식·김명보 등(23명).

<표 8> 발전기의 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비고
9	1980	춘천	은1 : 이창진(중앙중)	고익조	이동건	
10	1981	광주	동1 : 홍신식(중앙중)	고학봉	신상은	
11	1982	대전	동2 : 고은보(중앙중), 한용식(중앙중)	정건웅	이동건	
12	1983	전주	동3 : 고지형(중앙중), 오병철(서귀중), 진정우()	정건웅	이동건	
13	1984	제주	금2 : 오병철(서귀중), 진정우() 은1 : 강동균(), 동3 : 성의천, 송상준, 고영훈(이상 중앙중)	정건웅	김동훈	
14	1985	포항	동1 : 김운중(서귀중)	신상은	강중식	
15	1986	마산	금1 : 강승수(남주중), 동2 : 고성권(남주중), 임용배(서귀중). 종목별 분산개최	좌봉택	강중식	11체급
16	1987	울산	금1 : 강운만(남주중). "	양광호	오선홍 허종순	
17	1988	전주	금1 : 권혁훈(남주중), 은1 : 이광진(남주중)	양광호	허종순	
18~20회(1989~1991) 도 단위 대회로 개최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별책, 2001:241~261. 참고)

이 시기의 소년체육대회 성적과 지도자들을 <표 8>에서 보면 제13회 제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감독에 정건웅, 코치에 김동훈이 선수들을 지도하여 전국 2위를 하는 좋은 성적을 올렸으나 제10회에는 감독 고학봉, 코치 신상은, 제14회 대회에서는 감독 신상은, 코치 강중식이 선수들을 지도하여 동메달 1개씩만을 획득하는 저조함을 보였다. 제15회 대회부터는 8체급에서 11체급으로 경기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체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편급(31kg)까

지), 플라이급(31-34kg), 밴텀급(34-38kg), 페더급(38-42kg), 라이트급(46-50kg), 라이트웰터급(46-50kg), 웰터급(50-54kg), 라이트미들급(54-58kg), 미들급(58-63kg), 라이트헤비급(63-68kg), 헤비급(68kg 초과) 등이다. 밀줄친 3체급이 새로 포함된 체급이다. 그리고 제18회 대회부터는 시·도 단위로 개최되었다.

1982년도 제주도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제3대 창무관 서귀포 지관 사범과 제주도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지낸 박성관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핸드볼, 사격 선수들을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제주도체육회 편, 2001 : 562)

1983년 법환교 강익준 선수는 초등학교 선수로는 처음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초등학교태권왕겨루기대회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주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헤비급으로 선발된 ‘장승화’⁴³⁾ 선수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는 오현고등학교 신상은 교사의 지도로 3학년 재학시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헤비급 3위에 입상, 한국체육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그 후 영화배우 및 모델로 전향하였다가 제주도청 실업 팀이 창단되면서 제1대 코치에 취임하여 1년 동안 지도하다 은퇴하였다.

제61회 전국체육대회부터는 일반 중기부와 일반 고기부로 나누던 부별 구분을 일반부와 대학부로 구분하였다. <표 9>에서 전국체육대회 성적과 지도자들을 보면 제61회 대회에서는 제주태권도 2세대인 신상은, 이동건, 김창환이 감독 및 코치로 참가하여 8개의 메달을 획득,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제주대학 선수들의 선전했기 때문이다.

제66회 대회에서는 신상은, 강중식, 오선홍이 코치로 참가하여 동메달 2개로 가장 성적이 저조하였으며, 제70회 대회에서는 강용기 전무이사가 감독으로 참가하여 금메달 2개를 포함, 모두 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의 지도자들을 보면 감독은 1세대 지도자들이, 코치는 2세대 지도자에서 3세대지도자로 교체되고 있는 시기였다.

43) 오현고 졸업, 한국체육대학에 재학 중 헤비급 국가대표.

<표 9> 발전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61	1980	전주	금1 : 이종찬(제주대) 은3 : 김성훈(제주대), 강창효(), 김 완택(일반) 동4 : 김충욱(오현고), 정성철(남주고), 허종순(제주대), 강명덕(제주대) ※ 중·고기부를 일반부로 통합, 대학 부 신설	고학봉 진춘배 신상은	이동건, 김창환
62	1981	서울	은3 : 허종순(제주대), 김성훈(제주대), 강창효(제주대)	고학봉 신상은 이동건	강민호
63	1982	마산	은1 : 김성훈(제주대) 동3 : 채상만(오현고), 이종찬(제주대), 유성용(일반부)	좌봉택 정건웅 김성찬	이동건, 강민호
64	1983	인천	은1 : 최철영(제주대) 동1 : 장동화(일반부)	좌봉택 신상은 김성찬	김동훈
65	1984	대구	금1 : 장승화(일반부) 은1 : 최원국(제주대) 동3 : 한용식(오현고), 강성확(남주고), 윤희섭(제주대)	좌봉택 김성찬	신상은, 강중식, 오선희, 정건웅
66	1985	강릉	동2 : 김태형(오현고), 윤희섭(제주대)	좌봉택 정건웅 김성찬	신상은, 강중식, 오선희
67	1986	서울	은3 : 이승도(남주고), 고충환(오현고) 최원국(제주대) 동3 : 김태형(오현고), 김완택(일반부), 강근혁(일반부)	좌봉택 정건웅 김성찬	강중식, 오선희 최철영, 신상은

68	1987	광주	금2 : 강운신(남주고), 윤희섭(제주대) 동2 : 최원국(제주대), 채상만(일반)	좌봉택 양광호	허종순, 최철영, 김성찬
69	1988	전주	금1 : 채상만(일반부) 동4 : 강승수(오현고), 성의천(제주대), 진정우(한체대), 윤희섭(일반)	좌봉택 양광호	허종순, 최철영
70	1989	안양	금2 : 강승수(오현고), 진정우(일반) 은1 : 강운신(제주대) 동3 : 고병국(남주고), 오병철(한체대), 김태형(한체대)	강용기	최학기, 윤희섭, 서영삼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별책, 2001:115~144. 참고)

태권도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과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던 1985년에는 제11대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에 제주시 아카데미 극장 대표 정룡사가 회장에 취임하여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기 타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하였다. 그리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협회장배 대회를 창설하여 개최시기도 10월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후 다음해 3월까지 대회가 없으므로 경기력이 침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11월에 개최하였다. 제주시 민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회장배 대회에는 초등부 172명, 중등부 41명, 고등부 16명, 일반부 43명 등, 총 272명이 참가하였다. 경기 성적을 보면 법환초등학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탐라체육관이 우승하였다.⁴⁴⁾

이 시기는 관이 대한태권도협회로 완전 통합(1978)된 후여서 도장설립이 자유로웠으며,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선수육성 차원에서 도장설립을 장려했기 때문에 1980년대 제주도태권도협회에 등록된 도장은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26개였다.

44) 제주도태권도협회, 제1회 회장배 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85. p.7~10.

<표 10> 발전기의 도장 현황

도 장 명	위 치	관 장	설립년도	비 고
덕인체육관	서귀동 292	이덕부	1982	
화랑체육관	제주시 연동	이동희	1983	
학사체육관	제주시 용담 2동	정한수	1984	
고산도장	한경면 고산리	전기복	1984	경기도에서 전입
효돈체육관	서귀포시 하효동	허종순	1984	
표선체육관	표선면 표선리	강권식	1984	
신선체육관	서귀포시 서호동	양동언	1985	
신제주체육관	제주시 연동	안태문	1985	경기도에서 전입
황우체육관	제주시 용담1동	김창석	1985	
등용문체육관	제주시 2도1동	오공천	1986	
제주중앙도장	제주시 2도동	강중식	1986	
호돌이체육관	서귀동 276	김완기	1986	
동아체육관	서귀포시 정방동	문병희	1986	
세계태권도장	서귀포시 동홍동	최학기	1986	
한일체육관	애월읍 동귀리	양홍기	1986	
솔체육관	제주시 이도동	최철영	1987	
위미체육관	남원읍 위미리	김용남	1988	
한국체육관	조천읍 함덕리	김익수	1988	
백두체육관	제주시 용담1동	최내인	1988	
연동체육관	제주시 연동	오기녕	1988	
신라체육관	제주시 3도1동	박상용	1988	
백록체육관	제주시 일도2동	한용현	1989	
제일체육관	제주시 아라1동	강창남	1989	전주에서 전입
강호체육관	제주시 도남동	김명식	1989	한라체('85), 변경
백호체육관	제주시 도남동	윤종관	1989	
세화체육관	구좌읍 세화리	채상만	1989	

(출처 : 제주도태권도협회 도장등록 자료 참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타 시·도 사범들이 제주에서 도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장 숫자 면에서 제주시 지역이 서귀포지역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선수출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임명되던 시기였으므로 대부분 ‘도장을 설립한 사범들은 선수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육성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었다.’⁴⁵⁾ 따라서 선수발굴이 어려웠으며, 협회에서도 선수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1985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성적이 저조하여 전무이사으로써 코치를 담당했던 신상은이 사임하게 되며, 후임에 심판부장을 하던 양광호가 임명되었다.

1986년 5월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1회 대통령기 타기 전국태권도대회 일반부에서 종합 3위를 하여 제주태권의 명예를 높였다. 그러나 제주도태권도 1세대 출신으로 제주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던 정건웅(鄭健雄) 부회장이 작고하였다.⁴⁶⁾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정룡사 회장이 임기동안 <표 3>에서와 같이 전무이사가 3명이나 선임되는 등,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다.

한편 제주도협회 이사회에서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를 구성, 협회 산하 기구로 두었다.⁴⁷⁾ 유단자회 역대 임원들을 보면 <표 11>과 같이 제7대 회장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임기 중에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대표 선수 합숙훈련에 훈련비를 보조하는 등 회원단합과 후배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87년부터는 서귀포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선수들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면서 태권도 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부록 1>에서와 같이 서귀

45) 당시 고등부와 일반부에서 제주대표 출신 사범이 설립한 도장은 제주시에 제주중앙, 솔, 백두, 연동도장, 북군에 세화도장, 서귀포에 덕인, 효돈, 신선, 호돌이, 세계도장 등, 10개 정도였으며, 이들중 적극적으로 선수육성을 한 도장은 서귀포지역 도장들이었다. 따라서 이 후까지도 서귀포지역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46) 그는 제주태권도 1세대 선수의 선두 주자였으며 발기술이 아주 뛰어났었다. 지도자 시절에는 항상 선수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하며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자택에서 치러졌으며, 그의 나이 46세였기 때문에 태권도인들 뿐만 아니라 도내 체육인들이 까지도 슬퍼하였다.

47)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 회원 수첩, 1986, pp.1~11. 참고.

포지역 초·중·고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였으며, 제주 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11>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 역대 회장단

대	재임기간	회 장	부 회 장	사무국장	비고
1대	1986~1988	현봉석	진춘배, 오경보	강용기	
2대	1989~1990	좌봉택	곽학일, 오경보, 전기복, 정유보	양광호	
3대	1991~1992	김영하	이홍식, 정유보, 조수준, 한도실	김권태	
4대	1993~1994	김두은	조동석, 김창환, 정유보, 전기복	오선홍	
5대	1995~1996	김두은	조동석, 김창환, 정유보, 전기복	정한수	
6대	1997~1998	문무용	한도실, 강중식, 문영진, 오충남	안영익	
7대	1999~2000	문무용	한도실, 오충남, 강방익, 김수복	안영익	

(출처 :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 회원수첩, pp.6~11. 참고)

1989년 제5회 회장배타기 전도태권도대회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남자 초등부 112명, 중학교부 56명, 고등부 21, 일반부 21명과 여자부가 처음 신설되면서 초등부 11명, 중등부 2명, 고등부 11명, 일반부 6명이었다.⁴⁸⁾ 남자 초등부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중·고등부는 침체된 상태이다.

1989년도 국가대표 2진에 서귀포 출신 ‘진정우’⁴⁹⁾ 선수가 선발되었다. 그는 국가대표 2진을 2년 연속하면서 서독 칼스루헤(karlsruhe)에서 개최된 제3회 월드게임과 다음해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웰터급에서 우승하였다. 은퇴 후에는 제주도태권도협회 코치로 활동하여 지도자로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 또한 서귀중앙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경숙’⁵⁰⁾

48) 제주도태권도협회, 제5회 회장배 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89. p.8~9.

49) 서귀중앙체육관(사범 오행선)에 입문, 서귀중 3년때 제13회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획득, 부산체고 졸업, 한국체육대학 1학년 재학 중 국군체육부대에 입대, 웰터급 국가대표 2진 2회.

50) 초등학교 5학년 때 서귀포 덕인체육관에 입문, 서귀중앙여중 3학년 때 국가대표 2진, 서귀여고 1학년 재학 중 서울 은광여고에 전학, 경희대 재학중 1993년과 1995년 라이트급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됨.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제3회 월드게임에서 3위에 입상하였다. 그는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또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제4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2위, 제6회 여자세계선수권대회 1위를 하여 제주태권의 명예를 높였다. 그는 은퇴 후 제주시청 여자코치를 하였으나 지도자로서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5. 도약기(1990~2000)

이 시기는 태권도 도장이 대거 설립, 제주도청에 태권도부 창단, 외국과의 친선교류협약, 남녕고 체육학급과 제주공고,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탐라대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 되었으며, 전국대회 제주유치 등, 외적인 발전에 노력하여 제주도태권도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은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제6회 회장배타기 전도태권도대회에는 남자 초등부 80명, 남자 중학교부 38명, 고등부 59명, 남자 일반부 26명, 여자부 25명이 참가하여 선수 층이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⁵¹⁾ 이와 같이 선수육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사실상 폐지되어 각 도장에서 선수 육성이 어려웠으며, 이 시기 협회 운영의 실무자였던 전무이사들은 직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선수 활성화에 전념할 수 없었고, 협회 코치들과 학교 및 도장 지도자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3월 제13대 회장에 파라다이스 골프클럽 대표 정이수를 당시 부회장이었던 현봉석(玄奉錫)에 의하여 회장으로 영입하였다. 그는 대통령기타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태권도활성화에 노력하였다.

1991년도 제주도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제주도태권도협회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지도자로서 전국에 명성을 떨친 문무용이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진정우 선수는 '91년도 제주도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다.(제주도체육회 편, 2001 : 565~583. 참고)

51) 제주도태권도협회, 제6회 회장배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90. p.8~9)

<표 12> 도약기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독	코치
21	1992	대구	은1 : 김형중(중문중) 동1 : 황용길(남주중)	양광호	강민호
22	1993	경기	금1 : 김정선(서귀중) 은1 : 강승철(대정중) 동3 : 강경범(남주중), 고재필(서귀중), 김 신규(중문중)	조동석	김동훈
23	1994	광주	은1 : 정명진(대정중) 동2 : 김동연(오현중), 이원희(중앙중)	조동석	김동훈
24	1995	대전	금1 : 박태열(서귀중) 동1 : 박정민(서귀중)	조동석	진정우
25	1996	포항	금1 : 박태열(서귀중) 은1 : 고동영(서귀중)	조동석	진정우
26	1997	강원	금1 : 김신정(남주중). 은2 : 함규환("), 장두상(오현중) 동4 : 박양배(남주), 박경문("), 서희정(제 주여중), 강미라(성산중) *여중부 채택(총22체급)	조동석	진정우, 강승수
27	1998	경남	금1 : 강미라(신산중) 은1 : 임창용(남주중), 동2 : 이영광(남주중), 장두상(오현중) *남초부 채택(총33체급)	조동석	강근배, 진정우, 박경숙
28	1999	제주	금3 : 한찬석(조천중), 김천권("), 송명신 (제주여중) 은3 : 김정우(위미초), 신여진(함덕중) 강 진하(함덕중) 동8 : 임창현(구좌중앙초), 오영택(위미초), 송문철(삼양초), 김경태(제북초), 윤달호(귀 일중), 한효진(함덕중), 강진희(표선중), 김 상수(조천중)	조동석 이계형	최학기, 성의천, 김창범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 치
29	2000	인천	금1 : 장명수(남주중), 동1 : 김형준(귀일중)	최학기 강창효	강명덕, 성의천, 김창범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별책, 2001:263~302. 참고)

1992년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폐지 된지 4년만에 부활됨으로 인해 제주도대표 선수들을 선발, 태권도회관에서 합숙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수와 코치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⁵²⁾

<표 12>에 의하여 도약기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과 지도자들을 보면 금 메달이 없는 대회는 제21회와 23회 대회였다.

제25회 대회까지는 중학교 남자부 11체급이었는데 가장 성적이 좋은 대회는 제22회 대회로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제26회 대회에는 여자중학교부가 채택되어 22체급에 참가하여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실적을 남겼다. 그리고 제27회 대회에는 남자 초등부 8체급이 채택되어 33명의 선수를 참가시켰으나 금 1개를 포함하여 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제주에서 개최된 제28회 대회에서는 계획적인 동계훈련과 경기 적응훈련으로 금 4개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조천중학교 한찬석 선수는 후에 주니어 국가대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인천에서 개최된 제29회 대회에서는 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쳐 전년도의 성적을 의심케 하였다.

이 시기의 소년체육대회 감독에는 대부분 전무이사가 맡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장 성적이 저조했던 제29회 대회에서는 기술심의회 임원이 감독으로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 고된 훈련을 이겨내지 못한 한 선수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표 13> 도약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 및 지도자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치
71	1990	제천	금1 : 진정우(일반부) 동5 : 정태호(제주대), 성의천(), 오병철(한체대), 강승수(), 최연석(인천체전)	진춘배 강용기	안영익, 최철영
72	1991	전주	금2 : 성의천(일반부), 진정우() 은1 : 강동범(일반부) 동2 : 김남경(남주고), 최원국(일반부)	정이수 진춘배 양광호	오선희, 김동훈, 최철영, 강민호
73	1992	대구	금1 : 김태형(일반부)	진춘배 양광호 김성찬	이계형, 강민호, 윤상택
74	1993	광주	금1 : 박경숙(여자부, 시범종목) 은1 : 서배홍(제주대) 동6 : 김승윤(제주대)김남경(), 강동범(), 강승수(한체대), 강근배(일반), 김태형(일반) *여자시범 종목	조동석 김성찬 오선희	김동훈, 최철영 양동언, 한용식
75	1994	대전	은1 : 이광석(남주고) 동4 : 고재필(남주고), 김룡(일반), 강승수(일반), 박경숙(여자부,경희대)	조동석	김동훈, 윤상택, 최철영, 강동균
76	1995	포항	은1 : 김신규(남주고) 동3 : 고재필(남주고), 고대휴(제주대), 강승수(일반부) *여자 정식종목(총32명)	조동석 오선희	김동훈, 윤상택, 김태형, 진정우
77	1996	춘천	금2 : 이광석(남주고), 고대휴(제주대) 동2 : 김현섭(남주고), 고경민(남녕고)	조동석 윤상택	진정우, 한용식, 성의천

회	연도	장소	성 적 및 선 수 성 명	감 독	코치
78	1997	마산	금2 : 김동연(남녕고), 이정숙(여일반) 은2 : 이광석(대), 강동범(일반) 동4 : 이명선(남녕고·여), 서상훈(일반), 고대휴(일반), 조재영(여일반) *여고부 채택(총40명)	김웅일 강민호	김태형, 최철영, 박경숙, 진정우, 김동훈
79	1998	제주	금3 : 양창일(남녕고), 이광석(경희대), 강해은(여일반) 은2 : 최승길(남일반), 강승수(남일반) 동9 : 이태경(제주공고), 문은정(한림고), 윤귀상(고려대), 박종범(남일반), 고대 휴(), 양원철(), 박정순(여일반), 오 미니(), 김윤경()	안영익 최철영	강중식, 장승화, 김태형, 오병철, 진정우
80	1999	인천	금1 : 김정선(경희대) 은1 : 이광석(경희대) 동1 : 권은경(여일반)	이계형 강창효	김태형, 김창범, 성의천, 강동범, 박경숙
81	2000	부산	금1 : 고대휴(제주대) 은2 : 함규환(남녕고), 김정선(경희대) 동4 : 김신정(남녕고), 김남웅(남일반), 전기숙(여일반), 양혜정(여일반)	이계형 강창효	김창범, 성의천, 박경숙, 강동범, 김태형.

(출처 : 제주도체육회 편·별책, 2001. 참고)

<표 13>에 의하여 도약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과 지도자들을 보면 제73회 대회에서는 금 1개만을 획득하는 부진함을 보였는데 당시 제주도태권도협회는 화재사건으로 집행부 임원들 다수가 퇴진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였다. 제76회 대회에서는 여자부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남자 고등부·남자

대학부·남자 일반부·여자 일반부 각각 8체급씩 모두 3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주도협회에서는 여자부 육성에 소홀하여 남자부에서만 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부터는 여자고등부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총 5개 부에 40명의 선수가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포함하여 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여자 일반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용인대 이정숙 선수와 동메달을 획득한 서상훈·조재영 선수는 제주도와 관련이 없는 타 지역 출신으로 전국체육대회만 제주도로 출전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 순수 제주출신으로 메달을 획득한 것에 비하면 좋은 성적은 아니었다.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모두 14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 2위를 하였으나 타 지역 출신 입상자가 8명이나 되었다. 이들을 보면, 강해은·오미니·김윤경(상명대)·윤귀상(고려대)·박종범(상무)·최승길·양원철(타 시·도에서 영입한 제주도청 선수)·곽정순(타 시·도에서 영입한 제주 시청 선수) 등이다. 제주도 출신 선수들의 메달획득 수를 타 시·도에서 개최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결과는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니었다. 결국 제주도협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회 때마다 타 시·도에서 급하게 선수들을 조달하여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시청 여자 부와 제주도청 남자부가 창단되어 타 시·도 선수들을 영입하였으나 은 1, 동 2개로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인천에서 개최된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는 39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부진함을 보였다. 외부적으로는 마스크를 통하여 협회가 꾸준히 발전되는 것처럼 자주 보도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선수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타 지역출신 선수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본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상한 선수들을 보면 동메달을 획득한 제주시청의 권은경 선수만 타 시도출신이며, 금메달을 획득한 김정선 선수와 은메달을 획득한 이광석 선수는 서귀포지역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다. 결국 장기적인 메달획득을 위해서는 제주출신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육성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 시기의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고자하는 계획과 투자보다는 오직 임기 동안의 성적만을 의식한 듯, 타 시·도 선수들에게 메달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월 제주도태권도협회 제14대 회장에 '주식회사 동성' 회장이던 양세훈이 추대되었으며, 태권도인 부회장에는 신상은(상임)·김창기, 전무이사에 교육행정 공무원이며 한림공고 태권도선수 출신인 조동석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상임이사에는 신상은 상임부회장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선임되었다.

양세훈 회장은 취임 후 제주·몽골협회 간 친선교류협약을 맺어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몽골선수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교류였기 때문에 협회 발전에는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임기를 1년 남기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후임에 부회장이던 고우방이 선임되어 잔여 임기를 마쳤다.

1994년 5월은 태권도역사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다. 태권도가 가라데와 차별화된 가장 큰 이유를 태권도의 경기화에서 찾는다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 날이야말로 경기화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태권도로 보급되기 시작한지 30년만에 지구촌 스포츠로 공인을 받아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주게 되었다. 한편 제주에서도 태권도선수 저변확대의 기초 조직인 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이 결성되어 회장에 법무사인 홍가윤(현 제주도의회 의원), 전무이사에 오도관 출신이며 초등학교 교사인 김형우가 취임하였다. 초등학교연맹이 주최·주관한 제1회 회장기대회에서는 신례초등학교가 우승하였다.⁵³⁾

1994년 3월 태권도 선수출신인 최철영 교수의 노력으로 제주한라대학 태권도부를 창단하였다. 선수층은 대부분 도내 2진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전국 춘계종별대회'⁵⁴⁾에 출전하여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1995년 3월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이 개교되면서 태권도부가 창단 되었다.

53) 초등연맹 부회장 김형우 제공.

54) 참가자격은 고등부에서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없는 선수.

제주도에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약 12억원이 지원되면서 합숙시설과 훈련 시설을 갖추어 개교되었는데 태권도부 신입생은 7명이었다.(제주도체육회 편, 2001 : 95) 그러나 기존의 태권도부가 있던 학교는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제주도내에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 인원은 10명 내외로 조건이 좋은 남녕고등학교에 7명이 지원하고 나면 타 학교에서는 선수가 부족하여 팀 구성이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다.

1995년 제2회 제주도 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기대회에서는 모슬포 강무체육관 수련생으로 이루어진 대정초등학교가 우승하였다. 이는 ‘강덕원유단자회’에서 대정읍 지역의 침체된 태권도를 활성화시키자는 결의에 따라 강무체육관을 개관하고, 군에서 전역한 이승헌 사범을 임명하는 등, 유단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⁵⁵⁾

1996년 1월 제주도태권도협회 고우방 회장은 전임 임기 1년을 마치고 제16대 회장으로 다시 추대되었으며, 상임 부회장에는 전임 부회장이던 김창기가 선임되었고, 전무이사 또한 원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우방 회장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하여 전임 전무이사이던 조동석이 재임되었다. 또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심의회’⁵⁶⁾ 제도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규약개정’(제주도태권도협회 규약, 1997 : 5)을 통과시켜 협회를 기술심의회 위주로 운영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의 기술심의회 제도를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기술심의회 임원이 너무 비대해 제주도태권도협회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태권도협회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3월 제주공업고등학교에 태권도선수 출신인 한용식 교사가 부임하여 태권도부를 창단 하였으며, 이후 선수출신인 강명덕 교사의 부임으로 활성화되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찬석 선수가 주니어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태권도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남주고등학교 김신규 선수는 한

55) 강정구 면접(2001.11. 27)

56) 기술심의회는 3개 특별위원회 안에 12개 분광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기능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협회 사업계획 중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의뢰 받은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기술관련)의 작성·제출, 심의회 관련 제규정의 제정 등이다.

국 주니어 대표에 선발되어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 제주도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제46회와 4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주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으로 태권도발전에 노력한 좌봉택이 선정되어 상금으로 받은 전액(삼백만원)을 제주도태권도협회(이백만원)와 유단자회(일백만원)에 기탁하였다.

1997년 전국심판강습회를 제주에서 개최하여 지도자들과 심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제32회 대통령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유치하여 경기력 향상과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선수 출신 교수인 윤상택의 노력으로 제주관광대학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이후 3년 동안 전도태권도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였으나 이후 선수 수급이 어려운 상태이다.

1998년 협회집행부의 노력에 의해 제주도청에 남자 태권도부와 제주시청에 여자 태권도부가 창단되었다. 선수 구성은 제주도청의 5명의 선수 중 강동범 선수만 제주출신이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타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제주도청 코치에는 제주도최초의 국가대표 헤비급 선수 출신인 장승화가 임명되었으며, 제주시청 여자부 코치에는 국가대표 여자부 트레이너를 지낸 강중식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은퇴하였다.

1999년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탐라대학교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실기와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체계를 이룩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한 무도인 배출을 교육의 목표”(www.tamna.ac.kr 참고)로 삼아 태권도 전공 학과를 신설, 태권도 특기생을 모집하여 제주도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써 본 도에는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태권도 특기생을 모집('74년)한 이래 한라대학('94), 제주관광대학('97년), 탐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태권도부를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코치를 영입하여 전문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대학은 탐라대학교뿐이다. 따라서 탐라대학 태권도부는 앞으로 제주태권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된 '고대휴'57) 선수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

14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밴텀급 1위를 하였으며, 다음해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되어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월드컵태권도대회에 밴텀급 1위를 하여 제주태권의 명예를 높였다.

2000년 1월 27일에는 중국 산둥성체육위원회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제27회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를 제주에 유치하여 제주도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태권도협회와 제주도태권도협회 간에 태권도 교류 협정을 체결⁵⁷⁾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제주도내 태권도 도장은 2000년 현재 <표 14>과 같이 제주시 47개,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 19개, 북제주군 14개 등, 총 80개나 된다.⁵⁸⁾ 이와 같이 태권도 도장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때문에 20대에 4단 이상 고단자가 많이 탄생하고 있으며, 도장 설립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태권도사범이 직업으로써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도장 관장들끼리 그룹화 되어 명칭을 통일하거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어도 소그룹 모임을 갖으면서 태권도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호 체육관, 솔 체육관, 열린 체육관 이외에 오도관 계보 모임, 태권도 연구회 등 등, 새로운 계보형태의 소그룹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이 협회 운영에 잘 못 이용될 경우 제주도태권도협회 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57) 서귀중앙 초등학교시절 태권도에 입문, 남주중·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입학 1학년을 마치고 상무에 입대, 국제군인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밴텀급 1위를 하였으며, 이후 국가대표 1진과 제대 후 제주대학에 복학하여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되었다. 그는 현재 졸업하고 제주도청 소속 선수로 활동중이다.

58) 제주도태권도협회 2001대의원총회 자료, 사업실적 참고.

59) 제주도태권도협회, “도장등록자료” 참고, 2001.

<표 14> 도약기의 도장 현황

번	도장명	지도자	위 치	번	도장명	지도자	위 치
1	강호본관	김명석	일도 2동	26	열린 2관	최원국	연동
2	강호 1관	전학선	도남동	27	열린 3관	염원철	노형동
3	강호 2관	안성수	일도 2동	28	열린 5관	고은보	용담 1동
4	강호 3관	양홍기	2동 2동	29	열린 6관	배현진	용담 2동
5	강호 5관	강병중	노형동	30	열린 7관	김영택	도남동
6	강호 6관	차권우	용담 1동	31	예도	고철호	용담 2동
7	고려	홍창훈	노형동	32	올림픽	황종순	외도 1동
8	그린	변영황	화북 1동	33	정도	김승천	연동
9	대명	양수봉	일도 2동	34	정의	양윤철	화북 1동
10	대신	최효선	이도 2동	35	천풍	송은석	도남동
11	도남	김현남	도남동	36	코리아	고철진	용담 1동
12	동양	김희근	삼양 2동	37	탐라	김영하	일도 2동
13	무림신성	김주호	아라 1동	38	태양	양행권	이도 2동
14	백록	한용현	이도 2동	39	학사	부남철	용담 2동
15	백두	이승학	삼도 1동	40	한라	현계숙	삼도 1동
16	비호	현승철	노형동	41	화랑	이동희	연동
17	삼양	한상진	삼양 2동	42	황우	송기용	용담 1동
18	서부	김기형	연동	43	인화	현정훈	일도 2동
19	술 본관	최철영	일도 2동	44	경호	오창구	연동
20	술 1관	김 룡	이도 2동	45	호랑이	박현수	연동
21	술 2관	송진호	노형동	46	사자왕	양만석	노형동
22	신광	고충환	연동	47	신제주백호	윤종관	노형동
23	신라	박상용	삼도 1동	48	경희	박경숙	신서귀
24	열린본관	공철국	화북 1동	49	광무	오승후	송산동
25	열린 1관	최내인	삼도 2동	50	덕인	이덕부	천지동

번	도장명	관 장	위 치	번	도장명	관 장	위 치
51	상무	오석중	동홍동	66	표선헌우	박수남	표선 표선리
52	서귀	현용찬	동홍동	67	고산	전기복	고산리
53	세계	정성철	동홍동	68	국제	장영국	김녕리
54	신선	김완철	서홍동	69	신촌	김창범	신촌리
55	청룡	양정용	하효동	70	애월	배철호	애월리
56	현대	강근혁	새서귀	71	용호	강복향	한림 동명
57	호돌이	오훈중	서귀동	72	조천	이창헌	조천리
58	중문덕인	이형걸	중문동	73	태극	이창화	조천리
59	강무	강정구	대정 하모리	74	한국	김익수	함덕리
60	남원	김두수	남원리	75	한일	고영남	하귀리
61	비룡	허철지	대정 상모리	76	한진	김영철	한림리
62	예광	강기주	성산 고성리	77	홍무	이종원	한림리
63	용두	박성제	안덕 화순리	78	한수풀	장 현	동명리
64	정도	허정성	남원 위미리	79	유성	김남경	평대리
65	표선	오현미	표선 표선리	80	김녕	고종선	김녕리

(출처 : 제주도태권도협회)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에 태권도가 유입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을 고찰하여 태권도인과 후학들에게 제주태권도를 이해하게 하며, 사적(史的)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주에 태권도가 유입되기 이전 현대태권도의 계보 형성과정을 고찰한 다음 1955년 제주에 유입되어 발전된 과정을 경기태권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대태권도는 가라데를 배운 유학생들과 중국 무술을 배웠던 武道人들이 1945년을 전·후로 5개 도장을 설립하여 계보(관)를 형성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6.25전쟁으로 설립자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하자 제자들 간의 갈등으로 4개 도장이 신설되어 이들 9개 도장은 계보를 형성하며 지방으로 보급되고 있었다. 제주에는 195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제주에서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급기(1955~1961) : 호신을 위한 무술로써 계보에 의하여 농촌지역까지 활발하게 보급되던 시기였다.

전환기(1962~1969) :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구성되고, 경기화 되면서 농촌지역의 도장들은 침체되었으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 시작하였다.

성장기(1970~1979) : 제주도태권도회관이 건립되고,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를 하였으며, 계보의 폐쇄로 개인 도장 설립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발전기(1980~1989) : 태권도 사범이 직업으로 정착되기 시작하고, 제주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 대통령기타기 전국대회 유치, 국가대표선수 탄생, 유단자회의 조직, 선수출신들이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태권도발전에 이바지 하던 시기였다.

도약기(1990~2000) : 해외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각종 전국대회 제주유치,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과 제주공업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탐라대학교, 제주도청 등에 태권도부 창단, 제주 전국체육대회 2위, 그리고 태권도 도장 설립이 급속히 증가되어 제주태권도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은 시기였다. 그러나 남녕고등학교 태권도부의 창단은 기존의 팀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 개최된 제79회 전국체육대회를 전·후로 타 시도선수들을 영입하여 메달획득에 급급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태권도인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등, 내적인 발전보다는 외적인 발전에 치중하였던 시기이다.

제주태권도는 경기태권도로의 급속한 발전과 경기단체간 메달 경쟁으로 장기적인 선수 저변확대 보다는 단기적인 메달획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태권도 도장발전과 내부적 갈등의 해소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계보(관)가 통합된 이후 근래에 와서는 도장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이란 취지아래 <표 14>에서와 같이 여러 도장이 모여서 명칭을 통일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조직하는 등, 각 도장별 새로운 계보가 형성되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자료가 빈약해서 원로 태권도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연구자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인용되어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객관성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태권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앞으로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태권도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경기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태권도협회, 제주도체육회 및 교육기관에서 태권도부가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로 연계 육성될 수 있도록 특기학교의 선정, 지도자의 배치, 예산의 배정 등,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장 명칭의 통일에 의한 단체 조직이나 소그룹 도장들의 모임은 새로운 계보를 형성, 제주태권도 발전에 부정적인 면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기석, 「이야기 한국체육사 20·태권도 반세기」, (주)케이디미디어, 서울, 2001,
- 강원식·이경명, 「태권도 현대사」, 보경문화사, 서울, 1999.
- 김경지, 「태권도학 개론」, 경운출판사, 서울, 2000.
- 김용옥,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서울, 1990.
- 김 철, 「태권도의 구조적 탐구」, 원광사, 서울, 1997.
- 국기원 편, 「국기 태권도교본」, 삼훈출판사, 서울, 1987.
- 대한체육회 편, 「대한체육회 70년사」, 내외경제신문, 서울, 1990.
- 문교부 편, 「체육교육자료 총서·태권도」, 서울신문사 출판국, 서울, 1976.
- 박한규, 「한국 태권도 발달사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서울, 1981.
- 안용규, 「태권도 역사·정신·철학」, 도서출판 21세기 교육사, 서울, 2000.
- 양진방, 「해방이후 한국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86.
- 이교운, 「태권도 교본」, 삼신서적, 서울, 1971.
- 이상현, 「광복이후 태권도의 국제화 과정」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영득, 「근대 한국 태권도의 발달과정과 세계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이원국, 「태권도 교범」, 진수당, 서울, 1968.
- 이종우, 「태권도교본 품새편」, 대한태권도협회 출판부, 서울, 1975.
- 이학식, 「태권도 교본」, 도서출판 바른길, 서울, 2001.
- 정찬모, 「태권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헤민기획, 서울, 1999.
- 제주도체육회 편, 「제주도체육회 50年史」, 나라출판사, 제주도, 2001.
- , 「제주도체육사」, 제주도체육사 편찬위원회, 1991.

- 제주도체육회, 「제주체육」, 제41호, 2001. 12월호.
- 제주도태권도협회 산하도장 통합 결의문 참고, 1968.
- 제주도태권도협회, 제9회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74.
- 제주도태권도협회, 도장등록 자료 참고, 2001.
- , 제1회 회장배 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85.
- , 제5회 회장배 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89.
- , 제6회 회장배 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90.
- , 제22회 전도태권도대회 자료 참고, 1987.
- , 「규약집」, 제주도태권도협회, 1997.
- 창무관 제주본관 편, 「제주도 창무관 입관대장」, 1965.
- 창무관 제주본관 편, 「제주도 창무관 승급·승단 대장」, 1971.
- 최홍희, 「태권도와 나」, 1권, 도서출판 사람다움, 서울, 1997.
- 최홍희, 「태권도와 나」, 2권, 도서출판 사람다움, 서울, 1997.
- 하태은, 「광복 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 연구」, 세계태권도학회지, 제3권, 1999.
- , 「실전 태권도」, 공학사, 대구, 1998.
- 황 기, 「수박도 교본」, 계당문화사, 서울, 1970.

<부 록>

1. 기타 전국대회 성적

년도	대 회 명	성 적	비 고
1966	'66 전국종별대회	은1 : 김필호(제주대)	
1967	'67 전국종별대회	금2, 은3	
1968	제3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	금4 : 김덕진, 현봉철, 강여익, 강방익	우승
1974	제2회 중·고연맹대회	오현고 단체3위	
1975	'75 전국태권도신인대회	금2 : 김완기(인천체전)·오행선()	
1976	제11회 대통령기전국대회	은1 : 김동훈(오현고),	
1977	제4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동1 : 안영익(인천체전)	
	제4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동1 : 장승화(오현고)	
	'77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은1:안영익(인천체전), 동1:장승화(오현고)	
1978	제5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동1 : 안영익(인천체전)	
1983	제4회 국민학교태권왕대회	은1 : 강익준(법환교)	
1984	'84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금2 : 강동균·진정우(서귀중), 은1, 동1	
1985	'95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금1:김운중(남주중), 동1:김영필(중앙중)	
1986	'86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은1:강승수(남주중), 동1:김한주(제서중)	
	제3회 전국대학대회	은1 : 채상만(제주대)	
	제21회 대통령기대회	금2, 은3, 동7, 종합 3위	제주
1987	'87전국종별태권도대회	은2 : 강동균(남주고), 권혁훈(남주중) 동2 : 김병석(남주중), 서배홍()	
	제8회 어린이태권왕대회	은1:이광원·동1:박진성(서귀중앙)	
	'87 전국추계종별대회	금1:성의천(오현고), 은1:송창훈(표선중)	
1988	'88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은1:김기현(오현중), 동1:오승태(남주중)	
	제15회 중·고연맹대회	동1 : 강근배(남주중)	
	제23회 대통령기전국대회	동1 : 강승수(오현고)	
	제24회 협회장배 겸 제15회 중고연맹대회	동1 : 김병석(남주중)	

년도	대 회 명	성 적	비 고
1989	'89 전국종별태권도대회	금1 : 강동범(남주고), 1 : 정태호(#)	
	제23회 대통령기전국대회	동2 : 강동범 · 정태호(남주고)	
	제12회 회장기전국대학대회	금1 : 양승관(제주대) 동2 : 강동훈 · 김정규(제주대)	
1990	제26회 협회장기타기대회	은1 : 성의천(제주대), 동1 : 강운신(#)	
1992	제13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은1 : 고동영(서귀중 양교) 동3 : 김종건, 김형조, 최인철	
	제27회 대통령기전국대회	은1 : 권혁훈(제주협회) 동1 : 현정훈(제일보)	제 주 유치
	제4회 경희대총장기남 · 여고 등학교대회	금1 : 서배홍(오현고) 은1 : 김승윤(남주고)	
	제13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타기전국국민학교대회	금3 : 양창일(신례교), 양혜정(#), 이명 선(서귀서교), 동3 : 고동영 · 이창훈 · 김해건(서귀중앙교),	
1993	제20회 중 · 고연맹대회	동1 : 고대휴(남주고)	
	제5회 경희대총장기대회	동1 : 황주오(남주고)	
1994	'94 전국종별태권도대회	금3 : 김홍수 · 강근배 · 현정훈(한라대) 은1 : 고도형(남주고) 동1 : 고태관(한라대)	
	제15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 대회	은1 : 박양배(서귀중앙교)	
	제21회 중 · 고연맹대회	동1 : 이동욱(남주고)	
	제5회 문화관광부장관기전국 중 · 고등학교대회	은2 : 문재성(제일고), 양혜정(효돈중) 동3 : 고대휴(남주고), 양창일(남주중), 김정선(서귀중)	
1995	'95 전국종별태권도대회	금2 : 박상훈 · 이동욱(한라대) 은2 : 조철주 · 고영남(한라대) 동4 : 박태열 · 오우항(서귀중), 김룡 · 김대회(한라대)	
	제16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 대회	동1 : 오재철(효돈중, 품새)	
	제6회 문체부장관기, 제21회 연맹회장기태권도대회	동1 : 오재철(효돈중)	

년도	대 회 명	성 적	비 고
1996	'96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금2: 강태욱·오석중(한라대), 은4: 오용석·이태현·송동희(한라대), 박양배(남주중), 동4: 김대곤·김창범·고영남·이강휘(한라대)	
	제1회 주니어대표선발전	금1: 김신규, 동2: 김현섭·고재필(남주고)	
	제6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은1 : 남주고단체전	
	제17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대회	은2 : 이영광(도순교), 장명수(서귀중앙)	
	제7회 문화체육부장관기전 국남·여중·고등학교대회	금1 : 최희중(오현중) 동1 : 임창용(남주중)	
1997	'97 전국종별태권도대회	금1: 허영배(서귀포시), 은1: 이승윤(중앙중), 동2 : 김신정(남주중), 오광재(서귀중)	
	제24회 중·고연맹회장기	동1 : 고경민(남녕고)	
	제18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대회	금1 : 이유나(신산교) 동2 : 한순미(신촌교), 이유나(신산교, 품새)	
	제8회 문화체육부장관기전 국남·여중·고등학교대회	은1 : 고경민(남녕고)	
	제6회 국방부장관기대회	은1 : 양원철(제주협회), 동2 : 서상훈·김남경(제주협회)	
1998	'98 국가대표선발예선전	동1 : 서상훈(제주도청)	
	'98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금1 : 백중현(관광대), 동1 : 조명철(오중)	
	제8회 용인대학교총장기	동1 : 양창일(남녕고)	
	제21회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동2 : 박종범·우덕용(한라대)	
	제25회 중·고연맹회장기	금2 : 김효빈(귀일중), 장두상(오현중) 은1 : 이명선(남녕고), 동1 : 김희숙()	
	제2회 주니어대표선발전	동1 : 장두상(오현중)	
	제28회 회장기태권도대회	동1 : 양원철(도청)	
	제9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금1 : 장두상(오현중), 은2 : 신여진·한표진(신산중), 동1 : 양창일(남녕고)	

년도	대 회 명	성 적	비 고
1998	제25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동2 : 현동훈·허정성(관광대)	
1999	'99전국 종별선수권대회	금1 : 함규환(남녕), 은2 : 오재필(효돈중), 모상현(한림고), 동4 : 한승용(남녕), 신희(관광대), 박철진(덕인체)	
	제9회 용인대총장기대회	동1 : 김대운(남녕고)	
	'99년도 교보생명배어린이 태권왕선발대회	은1 : 오영택(위미교) 동1 : 강기훈(표선교)	
	제26회 중·고연맹대회	은1 : 한승용(남녕고)	
	제1회 광주5·18민주항쟁추모기념태권도대회	금1 : 정봉영(남녕고)	
	제11회 경희대총장기대회	동1 : 한승용(남녕고)	
	제29회 회장기태권도대회	동1 : 고재필(제주도청)	
	제10회문화체육부장관기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금1 : 한표진(함덕중), 은1 : 한찬석(조천중), 동1 : 신영진(함덕중)	
2000	2000 전국종별태권도대회	금1 : 유남재(일반), 은1 : 천영택(제대), 동1 : 양홍중(관광대), 김신정(남녕)	
	제27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금1: 강동인(탐라대), 은1: 이순태(), 동2:김광석()	
	제10회 용인대총장기대회	금1 : 광병호(남녕고)	
	제27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금3:김신정(남녕),김상범(중앙중),장명수(남중), 동2:최양범(남중), 김효빈(남녕)	
	제14회 문광부장관기대회	금1 : 광병호(남녕고)	
	제30회 협회장기태권도대회	금1 : 박선미(도청), 동4 : 전기숙·인순영(), 양원철(도청), 함규환(남녕고)	
	제21회 문화관광부장관기전국초등학교대회	금1 : 김승진(위미교) 은2 : 이성민(위미교), 강기훈(표선교)	
	제11회 문광부장관기대회	동2 : 김형준(귀일중), 장명수(남주중)	
	제23회 회장기전국대학선수권대회	금2 : 민경식·김채선(탐라대,B조), 동4 : 모상현(제대,A조), 윤만근·이순태(탐라대, B조), 양영남(제대, B조)	

(출처: 제주도체육회, 제주도태권도협회)

2. 전도태권도대회 성적

연도	회	초등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
1966	1			제주제일고		서귀도장
1967	2		저청중학교	오현고등학교		남읍도장
1968	3		서귀중학교	오현고등학교		법환도장
1969	4		서귀중학교	한림공고등학교		서귀도장
1970	5		대정중학교	오현고등학교		대정도장
1971	6		효돈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서귀도장
1972	7	서귀중앙	효돈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서귀도장
1973	8	제주동교	오현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서귀도장
1974	9	광양교	오현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75	10	제주동교	서귀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76	11	제주동교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서귀도장
1977	12	제주동교	제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78	13	제주남교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실업전문대
1979	14	제주동교	제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0	15	제주동교	중앙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탐라체육관
1981	16	제주동교	중앙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고름회
1982	17	법환교	신창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고름회
1983	18	법환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고름회
1984	19	법환교	중앙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5	20	강정교	서귀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6	21	제주중앙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7	22	법환교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8	23	서호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탐라체육관
1989	24	서호교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0	25	서귀중앙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1	26	토평교	오현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쌍용체육관
1992	27	신례교	오현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쌍용체육관
1993	28	서귀중앙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쌍용체육관
1994	29	제주동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쌍용체육관
1995	30	하귀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쌍용체육관
1996	31	삼양교	중앙중학교	남주고등학교		광무체육관
1997	32	남	서귀중앙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관광대
		여	단체 없음	제주여중	한림고등학교	제주한라대
1998	33	남	제주북교	오현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관광대
		여	제주동교	신산중학교	한림고등학교	제주한라대
1999	34	남	제주북교	조천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관광대
		여	제주동교	함덕중학교	한림고등학교	제주한라대
2000	35	남	위미교	오현중학교	남녕고등학교	탐라대학교
		여	제주동교	남원중학교	제주여고	제주한라대
2001	36	남	중문교	오현중학교	남녕고등학교	탐라대학교
		여	남원교	남원중학교	제주여고	제주한라대

(출처 : 제주도태권도협회)

3. 회장배 타기 전도태권도대회 성적

연도	회	초등부	중학교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비고
1985	1	법환교	서귀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서귀중앙체	
1986	2	법환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탐라체육관	
1987	3	서호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8	4	서호교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89	5	표선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0	6	서귀중앙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1	7	서귀중앙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호돌이체육관	
1992	8	서귀중앙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3	9	서귀중앙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4	10	제주동교	대정중학교	제주제일고	제주한라대학	
1995	11	효돈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6	12	신촌교	제주중앙중	남주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1997	13	남 제주북교	남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정도체육관	
		여 남원교	제주여중	한림고등학교	단체팀 없음	
1998	14	남 제주북교	오현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관광대학	
		여 제주동교	신산중학교	한림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1999	15	남 제주북교	조천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관광대학	
		여 제주동교	함덕중학교	한림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2000	16	남 위미교	오현중학교	남녕고등학교	탐라대학교	
		여 제주동교	남원중학교	제주여고	제주한라대학	
2001	17	남 중문교	남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한라대학	
		여 남원교	제주여중	제주여중	제주한라대학	

(출처 : 제주도태권도협회)

4. 서귀포시장기 및 전도태권도우수선수선발대회 성적

연도	회	초등부	중학교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비 고
1986	11	서호교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탐라체육관	
1987	12	서호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탐라체육관	
1988	13	서호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탐라체육관	
1989	14	서귀중앙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0	15	대정교	남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1	16	서호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남주고OB	
1992	17	서귀중앙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남주고OB	
1993	18	서귀중앙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오현고OB	
1994	19	신례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쌍용체육관	
1995	20	신촌교	서귀중학교	남주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6	21	신촌교	남주중학교	남주고등학교	금덕기업	
1997	22	신촌교	남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대학교	
1998	23	위미교	오현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정도체육관	
1999	24	남 위미교	남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정도체육관	
		여 서귀서교	제주여중			
2000	25	남 위미교	남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여 남원교	중문중학교	제주여고		
2001	26	남 대정교	남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탐라대학교	
		여 위미교	남원중학교	제주여고		

(출처 : 서귀포시태권도협회)

8. 제주도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기 전도 태권도대회

회수	1회 ('94)	2회 ('95)	3회 ('96)	4회 ('97)	5회 ('98)	6회 ('99)	7회 (2000)	8회 (2001)	비고
1위	신례교	대정교	신촌교	제북교	제북교	제북교	위미교	중문교	
2위	도평교	신촌교	삼양교	신촌교	삼양교	삼양교	남원교	제북교	

(출처 : 제주도초등학교태권도연맹)